

碩士學位論文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 연구
- 고백적 요소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成 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梁 連 實

2006年 8月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 연구

- 고백적 요소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成 俸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6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梁 連 實

梁連實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인준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 연구

- 고백적 요소를 중심으로 -

梁 連 實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成俸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은 메이지 40년(1907) 9월에 「신소설」에 발표된 중편소설이다. 중년의 문학자가 나이가 어린 여제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그 내면의 애욕을 그린 이 소설은, 가타이가 『동경의 30년(東京の三十年)』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게르하르트 하우스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에 감명을 받아 가타이 자신의 경험을 작품화한 자기 고백적 소설이었다. 가타이는 『이불』에서 그의 문이론인 노골적인 묘사론에 입각하여 실생활의 애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불』은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당시의 일본문단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세간의 많은 찬사와 비평을 이끌었다.

이후 『이불』은 작가 다야마 가타이의 고백소설로 읽히게 되었고 많은 작가들이 비슷한 유형의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일본문단에 사소설(私小説)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소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논문은 주인공 도키오를 통하여 나타난 고백적 요소를 고찰함으로써 가타이가 도키오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표출하고 말하고자 했는지 고찰하였고, 또한 텍스트 이야기 전개상의 요시코의 고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도키오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셋이나 딸린 30대 중반의 문학자로 생활을 위해 원치도 않는 지리서의 편집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뒤쳐진 문학상의 경력과 청년잡지로부터 매달 받는 혹평에 시달리며 권태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그는, 아름다운 여성과의 새로운 사랑을 통해 문학 활동을 일신하고자 한다. 그러한 와중에 나타난 아름다운 여제자 요시코의 출현은 도키오가 항상 동경해 마지않던 신여성의 출현으로 도키오의 삶에 신선함과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해 주었다. 그러나 요시코에게는 다나카라는 애인이 생기고 도키오는 스승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도 잊어버리고 여제자의 애인에게 강한 질투심을 느끼며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두 사람의 '온정어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떠맡아 위선적인 지식인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가타이는 도키오를 통하여 본능에 지배되는 성적 인간으로서의 노골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시코가 자신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육체에 성적욕망을 느끼는 중년남의 추악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가타이의 문학적 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주인공의 고백의 형태로 발표하면서 힘껏 자기표백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불』에는 이야기 전개상의 고백으로서 요시코의 고백이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쓰는데 있어 그 감정과 생각의 표현이 능숙하여 그녀의 내면을 고백하는데 주로 편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녀의 고백의 내용은 그녀와 애인 다나카 사이에는 육체관계가 있었고 이것은 메이지 시대의 새로운 여성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로 참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요시코에게 시점을 맞춘 고백은 『이불』이 도키오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타이의 고백소설로 읽을 수 없는 근거가 되고도 있다.

이상과 같이 『이불』에 나타난 고백의 내용을 고찰해본 결과 가타이가 내보이고자 한 것은 불건전한 작품 속에서도 놀랄만한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사실들인 질투나 위선, 추악한 성적본능에 지배되어 고뇌하는 인간의 약한 모습이 인간의 진실된 모습으로,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하고 취약한 일면을 독자들에게 일깨우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고백소설로서의 『이불(蒲団)』	6
1. 발생배경	6
2. 사소설과의 연관성	10
III. 다케나카 도키오의 고백의 양상	14
1. 문학자로서의 고백	14
2.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서의 고백	21
3. 질투와 위선적 지식인으로서의 고백	32
4. 성적 인간으로서의 노골적인 고백	43
IV. 요코야마 요시코의 고백	53
1. 고백의 수단으로서의 편지	53
2. 고백의 내용으로서의 참회	57
V. 결론	62
참고문헌	65
<Abstract>	69

I. 서론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 : 1872~1930, 이하 가타이라 칭함)는 시인이자 소설가로 일본 근대문학사에 있어서 자연주의 문학¹⁾의 성립을 논할 때 예외없이 등장하는 작가이다. 그는 초기에는 영탄적 서정작가이면서 사실적인 경향의 기행문 작가로 활동하였으나, 서구의 자연주의 문학을 접하며 일본의 독자적인 자연주의 문학을 확립했다. 『들꽃(野の花)』(1901), 『주에몬의 최후(重右衛門の最後)』(1902)등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인정받게 되고, 『이불(蒲団)』의 발표로 일약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인정받았다.

『이불』은 메이지 40년(1907) 9월에 「신소설(新小説)」에 발표된 중편 소설이다. 중년의 문학자가 나이가 어린 여제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그 내면의 애욕을 그린 이 소설은 가타이가 그의 문학 이론인 노골적인 묘사론에 입각하여 실생활의 애욕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이불』의 발표로 가타이는 당시의 일본문단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중심인물로 떠올랐고, 『이불』은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세상의 많은 찬사와 비평을 이끌었다.

가타이는 『이불』집필 당시 실생활이나 문학에 있어서 막다른 상황에 있었다. 실생활에 있어서는 아내와 아이를 가진 중년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1)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 나타난 문학운동으로, 문학은 과학과 실증주의의 방법과 성과를 활용하여 자연적 조건하에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이론. 유전과 환경 등의 요소를 중시하여 현실을 실증주의적,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해명하려고 시험한 줄라를 대표로 모파상, 공쿠르 형제, 도데 등의 이름을 들 수 있다. 자연과학의 진보와 산업혁명의 진행을 시대배경으로 하여 특히 추악한 현실을 그리려고 했다. 일본에서는 1890년 무렵 줄라의 이론이 소개되고, 자기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에 주안이 두어지는 점에 특색이 있다. (세계문학대사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고, 문학적인 면에서는 구니키다 돛포(国木田独歩)가 『돛포집(独歩集)』을 내놓고 시마자키 도순(島崎藤村)이 『파계(破戒)』를 발표하여 문단의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었으나 정작 그 자신은 아직 이렇다할 작품을 내놓지 못하여 혼자만 소외되는 듯한 초조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신소설(新小説)」에서 집필의뢰를 받은 가타이는 게르하르트 하우스트만²⁾의 『외로운 사람들』³⁾의 영향을 받아 그 자신이 고민하고 있었던 여제자와의 문제를 『이불』이란 작품으로 형상화하게 되는데, 모파상의 장편소설 『벨아미』⁴⁾로부터 인생의 극단을 폭로하는 거짓없는 면에 감동받고 있었던 가타이는, 작품묘사나 소재에 있어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여 당시의 문단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이불』이 일본문단 최초로 적나라하게 성욕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도 여제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좁은 일본문단에서는 가타이의 주변상황과 『이불』에서의 주변상황이 같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가타이의 집에 오카다 미치요(岡田美知代)라는 여제자를 두고 문학을 가르쳤던 점이나 작가와 작품에서의 주인공이 하는 일이 일치하였던 점, 처자를 둔 유부남이었던 점 등이 작품에서의 상황과

2) Gerhart Hauptmann(1862~1946):독일의 극작가, 소설가. 1889년 희곡 〈해뜨기 전〉을 발표하여 독일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존재가 된다. 191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그가 그린 것은 빈민에서 영웅에 이르기까지 운명에 희롱당하는 인간의 고뇌였다.
『세계문학대사전』, 학원출판공사, 1985, pp.1136~1137.

3) 1891년 작품으로 하우스트만의 자연주의적 경향을 대표하는 희곡의 하나. 요하네스 뢰케라트라는 젊은 자연과학자가 그 연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와 취리히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안나라는 여자 학생과의 삼각관계로 괴로워하다 자살하기까지를 그린 연극.

4) 파리의 저널리즘을 무대로 재능이 없는 비열한 한 젊은이가 미모를 밀친삼아 여자의 힘을 빌어 출세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금권과 부르조아 프랑스 사회의 추악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리얼리즘의 작품이다.
『세계문학대사전』, 학원출판공사, 1985, pp.342~343.

같았던 것이다. 그러한 점으로 『이불』을 읽은 독자들은 사랑하는 여제자의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녀의 냄새를 맡으며 비애의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인 다케나카 도키오(竹中時雄)가 가타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러한 점은 당시의 작가들에게 『이불』이 가타이의 적나라한 고백소설로 받아들여졌고, 이후 일본문단에 작가와 작품의 주인공을 동일시하여 작가 자신의 경험과 가식없는 고백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자전적인 소설인 사소설(私小説)⁵⁾의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일본에서 『이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는 “가타이가 창시한 사소설의 방법은 결국 일본의 근대소설을 왜곡시키고 위축시켜 큰 과오를 남겼다”⁶⁾고 하여 『이불』을 일본 사소설의 효시로 인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즉 가타이가 창시한 작자=주인공이라는 도식은 소설이 갖추어야 할 허구성마저도 부정하여 일본의 근대소설을 왜곡시키고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히라노 겐(平野謙)은 가타이가 『이불』 발표 이후에도 여주인공의 양친에게 편지를 보내며 예전처럼 스승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작자는 주인공이라는 사소설의 정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어렵다고 보고, 『이불』이 사소설의 시초라는 설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⁷⁾

요시다 세이치(吉田精一)는 위의 나카무라 미쓰오설과 히라노 겐의 설을 근거로 하여 『이불』의 총체적 전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불』이 자기

5) 작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 직접적인 생활체험이나 심경을 〈私〉라고 하는 1인칭으로 쓴 소설. 일본 독자의 고백형식의 문학으로 사소설이란 용어는 1920년경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나카무라 무라오(中村武羅夫)등에 의해 불려졌다.

6) 中村光夫(송현순 역), 『풍속소설론』, 불이문화사, 1998, p.82.

7) 和田謹吾, 「蒲団と虚構性」,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學燈社, p.85. 재인용

의 추악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그려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응시하려고 한 태도가 정직하고 진지한 작자의 인간성의 표현으로서 세상을 놀라게 한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약간의 픽션은 있을지라도 『이불』이 사소설의 효시라고 보는 것은 역시 틀리지 않다⁸⁾고 말하고 있다.

와다 긴고(和田謹吾)는 가타이가 『이불』에서 소설의 소재로 사용한 자신의 체험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가 말하는 ‘추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허구라고도 사실이라고도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히라노 겐씨가 말하는 “픽션이 될 가능성도 사소설이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타이가 이러한 소재를 사용한 자세 속에는 체험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리려고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⁹⁾고 말하고 있다.

치바 미쓰기(千葉貢)는 『이불』이 자신의 신변을 둘러싼 자기애적인 관심사를 생각하는 대로 써낸 자전적인 내용으로 작가 다야마 가타이의 고뇌와 슬픔이 숨겨져 있는 고백소설¹⁰⁾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타이는 『이불』이 발표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1917년에 자신의 문학생애를 되돌아 본 회상집 『동경의 30년(東京の三十年)』에서 『이불』의 창작 동기에 대해 “숨겨 두었던 것, 덮어 놓았던 것, 그것이라고 털어놓으면 자신의 정신도 파괴될 것처럼 생각되는 것, 그러한 것도 드러내 보이려고 생각했다.”¹¹⁾라고 밝힘으로써 『이불』이 가타이 자신의 고백적 요소가 포함된 것임을 밝혔다.

8) 吉田精一, 『自然主義の研究』下巻, 東京堂, 1958, p.160.

9) 和田謹吾, 「蒲団と虚構性」, pp.88~89.

10) 千葉貢, 「田山花袋『蒲団』考-「告白」の悲しみ-」, 『高崎経済大学論集』, 高崎経済大学学会, 1992, pp.226~225.

11) 田山花袋, 「東京の三十年」, 『田山花袋』, 日本図書センター, 1995, p.160.

지금까지 한국에 있어서 일본 근대문학연구는 몇몇 유명작가에 치우쳐 있어서 가타이 관련 작품은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문학을 논함에 있어 자연주의 문학의 성립을 빼놓을 수 없고, 『이불』은 일본의 자연주의 문학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불』은 이후 다이쇼(大正)기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문학 형식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소설의 효시로서 평가를 받는다는 문학사적 비중을 생각해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불』이 작가 자신이 경험한 실제 사건을 다루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불』에 나타난 고백적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고백소설로서 『이불』이 등장하게 된 발생배경과 사소설과의 연관성을 살핀 다음, 주인공 도키오를 통해서 나타난 고백적 요소를 고찰하여 가타이는 도키오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불』에 나타난 고백의 모든 면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텍스트 내용에 나타난 요시코의 고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텍스트는 岩波書店에서 간행한 『蒲団』(2003/11)을 사용하였으며, 텍스트 인용의 번역은 오경 역 『이불』(소화, 2004)을 선택하였다.

II. 고백소설로서의 『이불(蒲団)』

후지모리 기요시(藤森清)는 『이불』이 이중의 의미로 고백이라는 행위와 관계하고 있다¹²⁾고 말한다. 하나는 『이불』의 여제자 요코야마 요시코의 고백을 말하는 것으로, 『이불』에 단 한번 등장하는 ‘참회’(9장)라는 말은 요코야마 요시코의 행위를 가리키며 사용되고 있고, 이 요시코의 고백은 “그리운 사람의 언문일치”의 세통의 편지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 하나는 『이불』이 “이 한편은 육체적인 사람, 적나라한 인간의 대담한 참회록”¹³⁾이라는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의 당시의 평론 이후 ‘주인공 다케나카 도키오=화자=작가 다야마 가타이’의 고백으로서 읽혀온 점이다.

이후 『이불』은 작자의 고백이나,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작품상의 완성도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자의 창작태도에 관심이 모아지며 사소설과의 연관성과 관련한 평이 주를 이루었다.

이 장에서는 고백소설로서 『이불』이 나타나게 된 발생배경과 사소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발생배경

『이불』 발표(1907) 당시의 일본은 시대적으로는 역동적인 시기로 일본 역사의 신기원이 창조되던 때였다. 청일전쟁(1894~1895)의 승리에 이어

12) 藤森清, 「『蒲団』における二つの告白—誘惑としての告白行爲—」, 『日本近代文学』, 日本近代文学会, 1993, p.21.

13) 星月夜, 「『蒲団』評」, 日本近代文学大系57 『近代評論集 I』, 角川書店, 1972, p.264.

서구열강 러시아와의 전쟁(1904~1905)에서도 승리한 일본은 서구 개인주의 사상의 고취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 왔던 오래된 관습과 인습이 여지없이 도전받는 시기였으며, 문학사적으로도 서구의 사실존중 이념에 입각한 자연주의 물결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때였다. 이러한 새로운 기운의 태동은 당시의 문단에서도 새로운 문학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기대감으로 팽배해 있었는데, 이러한 격변의 시대적 상황에 처한 가타이로서는 생애의 최대의 기회인 동시에 최대의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처한 가타이로서는 문단에서 문학적 교류를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미 문단의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초조감과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가타이는 이 시기의 초조감과 외로움을 『동경의 30년(東京の三十年)』(1917)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것은 전쟁에서 돌아 온 다음 다음해, 전쟁이 완전히 끝난 다음해였다. 상금은 얻지 못했지만, 사회는 전승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생생하게 활기를 띠고 있었다. 문단도 이미 시마자키군의 『파계』가 나와 대단히 갈채를 받고, 구니키타군의 『뚝보집』도 점점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어, 재판, 삼판의 호황을 누렸다. “가까스로 우리들의 시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구니키타군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전쟁에는 갔다 왔지만 작품으로서는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중략)… 나는 반은 실망하고 반은 초조했다.

それは戦争から帰って来た翌々年、戦争のすっかり了った翌年であった。償金は取れなかったが、社会は戦勝の影響で、すべて生々として活気を帯びていた。文壇も、もう島崎君の『破戒』が出て、非常に喝采を博し、国木田君の『独歩集』も漸く世に認められて、再版三版の好況を呈した。「ようやく我々の時代になって来そうだぞ」こう国木田君は笑いながら言った。私は一人取残されたような気がした。戦争には行って来たが、作としてはまだ何もしていない。…(中略)…私は半ば失望し、半ば焦燥

した¹⁴⁾

위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불』이 나오기 전까지의 가타이의 문단적 위치는 『쥬에몬의 최후』(1902) 외에는 이렇다할 결정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시기에 「신소설」에서 집필의뢰를 받은 가타이는 게르하르트 하우스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에 감명을 받아 드디어 자신의 경험을 작품화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바로 그 무렵 내 머리와 몸을 깊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게르하르트 하우스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Einsame Menschen)』이었다. 휘케라트의 고독은 나의 고독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중략)… 나도 고뇌의 길을 걷고 싶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싸우려고 생각했다. 숨겨 두었던 것, 덮어 놓았던 것, 그것이라고 털어놓으면 자신의 정신도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러한 것도 열어 보이려고 생각했다.

나는 이삼년 전 - 러일전쟁이 시작되는 해 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나의 안나 마르를 쓰려고 결심했다.

丁度其頃私の頭と体とを深く動かしていたのは、ゲルハルト・ハウプトマン의 “Einsame Menschen”であった。フォケラートの孤独は私の孤独のような気がしていた。…(中略)…私も苦しい路を歩きたいと思った。世間に対して戦うと共に自己に対しても勇敢に戦おうと思った。かくして置いたもの、壅蔽して置いたもの、それと打明けては自己の精神も破壊されるかと思われるようなもの、そういうものをも開いて出して見ようと思った。私は二三年前一日露戦争の始まる年の春から悩まされていた私のアンナ・マールを書こうと決心した。¹⁵⁾

위와 같이 가타이는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고뇌를 『외로운 사람들』의 휘케라트¹⁶⁾의 고뇌와 비교하여 가타이 자신의

14) 田山花袋, 「東京の三十年」, 『田山花袋』, 日本図書センター, 1995, p.159.

15) 앞의 글, p.160.

고백으로서 자신의 사실을 정직하게 『이불』에 털어놓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가타이는 당시 『이불』이 발표되어 이것이 가타이의 고백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소설작법(小説作法)』(1909)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의 「이불(蒲団)」은 작자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참회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한 추한 사실을 골라서 쓴 것도 아니다. 단지 자기가 인생 속에서 발견한 어떤 사실, 그것을 독자의 눈앞에 펼쳐 보였을 뿐이다.

私の「蒲団」は作者には何の考もない、懺悔でもないし、わざとあゝした醜事實を選んで書いた訳でもない。唯、自己が人生の中から発見したある事實、それを読者の眼の前にひろげて見せただけのことである。¹⁷⁾

위와 같이 가타이는 『이불』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이라고도 참회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기가 인생 속에서 발견한 어떤 사실을 펼쳐보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인생 속에서 발견한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타이가 경험하고 느낀 곳에서 나온 체험적 사실이므로 가타이가 고백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불』이 가타이의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로서, 고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불』은 자연중심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고 하여, 인간 사실의 심층심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정신성을 중시한 고백주의에 기인하는 작품¹⁸⁾으로서, 다야마 가타이가 자신의 신변을 둘러

16) 하우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의 주인공이다. 28세이며 생물학자 헤켈(Haeckel)의 문하생으로 자연과학을 공부하며 전공분야의 저술을 하려고 하나 그의 가정에서는 양친도 아내도 그의 사상과 일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17) 田山花袋, 『小説作法』, 博文館, 1909, p.66.

싼 자기애적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우스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을 모델로 하여 쓴 자기 고백적 소설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2. 사소설과의 연관성

『이불』의 발표는 당시의 문단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독자들로 하여금 가타이의 고백소설로서 인식하게 하였다. 그것은 작품에서 가타이가 자기고백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텍스트를 둘러싼 문학적 맥락이 고백으로서 읽기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한 당시의 가타이의 주변상황과 『이불』에서의 주변상황이 같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이불』이 가타이의 적나라한 고백으로서 읽혀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평론으로서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이 한편은 육체적인 사람, 적나라한 인간의 대담한 참회록이다...(중략)... 아름다움, 추악함의 거짓 없는 묘사가 일보를 전진하여 오로지 추악함을 묘사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자연과의 일면은 유감없이 이 한편으로 대표되고 있다. 추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치기 어려운 인간의 야성의 목소리이다. 거기에 이성의 반면을 비쳐서 자의식적인 현대성격의 견본을 정시하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공중에게 보여줬다. 이것이 이 작품의 생명이고 또 가치이다.

此の一篇は肉の人、赤裸々の人間の大膽なる懺悔録である。...(中略)... 美醜矯める所なき描寫が、一歩を進めて専ら醜を描くに傾いた自然派の一面は、遺憾なく此の篇に代表せられてゐる。醜とはいふ條、己みがたい人間の野性の聲である、それに理性の半面を照らし合はせて自意識的な現代性格の見本を、正視するに堪えぬまで赤裸にして公衆に示した。之れが此

18) 千葉貢, 앞의 글, p.223.

の作の生命でまた價値である。19)

라고 평함으로써 이후 ‘주인공 다케나카 도키오=화자=작가 다야마 가타이’로서 『이불』이 가타이의 고백소설로서 읽혀져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작가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소설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일본문단에 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소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는 그의 『풍속소설론』에서 “일본의 자연주의 문학과 거기에 이어 문단의 주류를 계승한 사소설(私小説)의 정형은 다야마 가타이의 『이불』에 의해서였다”²⁰⁾고 주장하여 『이불』이 가타이의 고백소설로서 사소설의 출발점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가타이가 창시한 사소설의 방법은 결국 일본의 근대소설을 왜곡시키고, 위축시켜 큰 과오를 남겼다”²¹⁾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타이가 하우스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을 오역하여 작자와 작중 인물과의 거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를 『외로운 사람들』의 주인공인 휘케라트로 가장해 버리기만 하면 그대로 하우스프트만이 되는 것으로 속단하여 작자가 곧 주인공이라는 기묘한 정식을 만들어냈고, 또한 작자와 주인공은 끊임없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작품 전체가 결국 작자의 ‘주관적 감개’의 토로에 그치고 말았다²²⁾고 비판하면서 사소설의 효시로서 『이불』을 인정하고 있다.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는 「사소설론」(1956)에서 『이불』의 자기 고백적 성격에 대하여 사소설의 일측면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루소(Rousseau 1712~1778)의 고백록(告白録)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루소

19) 星月夜, 「『蒲団』評」, p.264.

20) 中村光夫(송현순 역), 『풍속소설론』, p.11.

21) 앞의 글, p.82.

22) 앞의 글, pp.69~70.

의 고백록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일찍이 유례도 없었으며, 앞으로 흉내도 낼 리 없는 일을 기도하려고 한다. 한 인간을 정말이지 본연의 진리에 입각하여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다. 그 인간이란 바로 나다...(중략)... 수많은 군중을 내 주위에 모아다오. 사람들이 내 고백을 듣고, 나의 비열함에 비명을 올리거나, 나의 비참함에 얼굴을 붉히지 말기를²³⁾

고바야시 히데오는 위의 루소의 고백록 첫머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루소의 광기어린 말이야말로, 근대소설에서 처음으로 사소설이 탄생하게 된 연유를 나타낸다는 점으로...(중략)...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소설체로 문자화한 것이 사소설이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로, 소설의 유년 시대에는, 작가는 모두 이런 방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언뜻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는 희한한 것이어서, 사소설은 개인이 인간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기 이전에는 문학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루소는 18세기 사람이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사소설이 언제 어떤 외침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중략)... 자연주의 소설 운동이 성숙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사소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²⁴⁾

위의 일절은 고바야시 히데오가 사소설이 루소에서 시작되어 자연주의의 일본적인 부산물로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불』을 루소의 고백과 연결시켜 『이불』의 고백적 요소를 루소로부터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히라노 겐(平野謙)은 『이불』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23) 고바야시 히데오(유은경 역), 「사소설론」, 『고바야시 히데오 평론집』, 소화, 2004, pp.83~84. 재인용

24) 앞의 글, pp.84~85.

불』의 마지막 장면이 부자연스럽고 비현실적이며 가타이가 『이불』 발표 이후에도 여주인공의 양친에게 보낸 편지 등으로 봐서 작자는 주인공이라는 사소설의 정식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가타이의 의도는 자기 혁명에 있어 ‘문학적 야망에 의한 사회적 체면의 박탈’이라는 것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가타이는 『이불』에서 추악한 중년남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사회체면의 자기말살이라는 루소적 과제를 문학적으로 정착하려고 바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불』은 픽션이 될 가능성도 사소설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하면서 그 어느 쪽에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이불』이 오독하기 쉬운 획기적인 의미를 읽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이불』이 사소설의 시초라는 설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²⁵⁾

하지만 요시다 세이치(吉田精一)는 나카무라 미쓰오설과 히라노 겐의 설을 근거로 하여 약간의 픽션은 있을지라도 『이불』은 자기의 추악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그려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응시하려고 했고, 작자의 정직하고 진지한 인간성의 표현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하여 『이불』이 가타이의 고백소설로서 사소설의 효시라고 보고 있다.²⁶⁾

이와 같이 『이불』의 연구는 작품내용이 사실인지 허구인지에 관하여 논해지거나 작자의 창작태도에 초점이 맞춰지며 사소설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논해지고 있는 것처럼 『이불』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 약간의 허구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가타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 사소설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현재 정설로 통하고 있는 사소설의 효시라는 문학사적 의의는 확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5) 吉田精一, 『自然主義の研究』下巻, 東京堂, 1958, p.159. 재인용

26) 앞의 글, p.160.

Ⅲ. 다케나카 도키오의 고백의 양상

『이불』에 나타난 고백적 요소는 전장을 통해 주인공 도키오의 고백적 심리를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다. 도키오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셋이나 딸린 30대 중반의 문학자로 생활을 위해 원치도 않는 지리서의 편집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지리에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내심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뒤쳐진 문학상의 경력과 청년잡지로부터 매달 받는 혹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문학자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도키오를 통해 무엇을 고백하고 말하려 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문학자로서의 고백

도키오와 요시코의 만남은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된다. 세상은 나날이 변화하여 전차는 도쿄(東京)의 교통을 크게 변화시키고 청년들의 사고도 변하여 사랑, 문학, 정치를 이야기하는 일에도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여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도키오에게, 3년 전 어느 날 생활의 권태로움과 아내와의 단조로운 생활에 싫증이 나 있을 무렵, 그의 문학의 숭배자라는 한 여학생으로부터 제자로 삼아 달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고베(神戸)의 여학원 학생으로, 고향은 빗쵸(備中)의 니미마치(新見町)

이고 자기 작품의 숭배자이며 이름은 요코야마 요시코(横山芳子)라는 여자로부터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득찬 한 통의 편지를 받은 것은 그 무렵이었다. …(중략)…그래서 그 여자의 편지를 받았어도 특별히 답장을 보내야겠다는 호기심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사람의 열성어린 편지를 세통이나 받고서는, 그 대단한 도키오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2장, p16)

神戸の女學院の生徒で、生れは備中の新見町で、渠の著作の崇拜者で、名を横山芳子といふ女から崇拜の情を以て充された一通の手紙を受取つたのはその頃であった。…(中略)…だからその女の手紙を受取っても、別に返事を出そうとまでその好奇心は募らなかった。けれど同じ人の熱心なる手紙を三通まで貰っては、さすがの時雄も注意をせずにはおられなかった。(2章, p.12)

이렇게 열성어린 세통의 편지를 받고 도키오는 드디어 상대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며 답장을 쓴다. “답장을 쓴 것은 언제나의 공장 이층 방으로, 그 날은 매일의 일과인 지리책을 두 장 쓰다 중지하고 여러 장이 되는 긴 편지를 요시코에게 보내게”(2장,p.16) 된다.

여기서 도키오는 단조롭고 변함없는 일상의 질서에 얼마간의 변화를 가져다 줄런지도 모를 한 여성의 출현, 그 여성에 대한 최초의 생각이 매일의 과업으로 하고 있었던 지리를 쓰는 일을 중단하여 문학에 대해서 쓰는 일 속에 싹트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후도 도키오에게 있어서 요시코는 항상 문학과 함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시코는 도키오의 문학상의 여제자이고 요시코와 맺어진다면 어느 정도 자기의 문학을 이해해 줄 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 편지를 종종 주고 받으며 도키오는 요시코에게 호기심이 어린 관심을 갖게 되고 드디어 요시코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도키오의 집을 방문하여 문학상의 제자로서 도키오의 집에 기숙하게 된다.

요시코의 출현은 도키오에 있어서 권태로운 일상생활을 탈출하여 가정생활도 문학활동도 모두 일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권태로움과 일상에 찌든 그의 삶은 요시코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스스로 문학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문학과 동일화할 수 있는 추종자인 요시코에 의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이칼라한 신식의 아름다운 여제자가, 선생님! 선생님! 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잔뜩 자기를 사모하여 따르는데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자 누가 있겠는가...(중략)... 도키오는 신혼 당시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되어, 대문 가까이에 오면 가슴이 설레었다.(2장, p21)

ハイカラな新式な美しい女門下生が、先生！ 先生！ と世にも豪い人のように嚮仰して来るのに胸を動かさずに誰がおられようか。...(中略)... 時雄は新婚当座に再び揺ったような気がして、家門近く来るとそそるように胸が動いた。(2章, p.16)

위와 같이 요시코의 출현은 스스로 문학자이길 원하며 이상적인 문학생활을 꿈꿨던 도키오에게 만족감을 안겨주는 것이었고, 요시코에게 문학을 가르침으로써 더해지는 것이었다. 문학 신봉자라고 할 수 있는 도키오에게, 특히나 서양문학에 대한 믿음은 『이불』전장에서 하우스프트만, 투르게네프, 모파상 등이 인용되어 마치 가타이의 독서체험을 피력하는 것처럼 등장하기도 하는데, 문학신앙²⁷⁾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는 그의 서양문학에 대한 신봉은 요시코에게 서양문학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그 행동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문학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시코를 만나기 전에 그가 느꼈다는 고독감도 하우스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에서 찾아내고, 주인공 요하네스와 자기를 비교하게 된다. 주인공

27) 小仲信孝, 「〈文學〉の裏切り-『蒲団』と自然主義-」, 『国文学研究』, 早稲田大学国文学会, 1990/3, p.133.

요하네스의 고독은 자신의 고독인 것 같고 그러면서 자신의 고독이 요하네스와 같은 고독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키오의 고독은 확실한 의미와 윤곽이 나타난다. 『외로운 사람들』의 고독을 아는 것에 의해 자신의 고독을 문학적인 고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키오에 있어서 외국문학은 자기를 상대화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고독을 요하네스의 고독과 같은 위치에 두어 현실과 문학을 직결시켜 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키오의 의식은 『외로운 사람들』에 의해 자기를 현실 속에서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거꾸로 『외로운 사람들』속에 들어가서 고독의 발견에 기뻐하며 사랑의 행방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요시코에게 연인의 역할을 할당해 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그리고 그가 요시코에게 가르치는 문학도 주더만의 마그다²⁹⁾, 입센의 노라³⁰⁾, 투르게네프의 엘레네³¹⁾ 등 주로 서양의 문학을 인용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요시코에게 새로운 여성으로서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설법한다.

“여자도 이제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옛날 여자처럼 의타심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 주더만의 마그다가 말했던 대로, 아버지 손에서 곧장 남편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패기 없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 일본의 신여성은 스스로 생각하여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하고는, 입센의 노라의 이야기와 투르게네프의 엘레네의 이야기, 러

28) 앞의 글, p.136.

29) 주더만의 대표적 희곡 『고향』의 여주인공. 이 희곡은 새로운 사상의 여성과 낡은 사상의 아버지와의 충돌을 그려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30)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의 여주인공. 한 남성의 아내로서 단지 남편의 인형이라는 것에 반발하여 가정과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가출하는 여자. 소위 근대적 자아에 눈뜬 신여성의 전형이다.

31) 투르게네프의 대표적 소설의 하나인 『그 전날 밤』의 여주인공. 불가리아의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청년을 사랑하여 그 이상 때문에 부모도 집도 버리고 행동하는 러시아의 여성이다.

시아, 독일 등의 여성이 의지와 감정이 모두 풍부한 것 등을 들려주고, (3장, pp.25~26)

「女子ももう自覚せんければいかん。昔の女のように依頼心を持っていては駄目だ。ズウデルマンのマグダの言った通り、父の手からすぐに夫の手に移るような意気地なしでは善方が無い。日本の新しい婦人としては、自ら考えて自ら行うようにしなければいかん。」こう言っは、イブセンのノラの話や、ツルゲネーフのエレネの話や、露西亞、独逸あたりの婦人の意志と感情とともに富んでいることを話し、(3章, p.19)

위와 같이 『이불』에는 도키오가 요시코에게 신여성으로서 자각할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나 서구근대여성의 이름이 도처에 나온다. 여기에서 신여성으로서 자각한다는 것은 입센의 노라이즘³²⁾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입센의 노라는 남성 전제사회에서 그 희생을 강요당하는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여성의 독립을 선언한, 여자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에 눈뜬 자각한 여성의 전형이다.

투르게네프의 엘레네도 사랑을 위해 부모와 집을 버리고 이역의 전지로 뛰어드는 여성으로서 투르게네프는 엘레네를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미래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마그다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독일의 신여성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주인공³³⁾임을 감안한다면 『이불』에서 가타이가 요시코에게 설법하는 신여성의 의미는 외국문학을 빌어 말하고는 있지만,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불』 전체를 통해서 도키오의 처와 대조되는 요시코가 신여성이라는

32) 입센의 《인형의 집》의 여자 주인공 노라의 이름에서 온 말로, 남녀 불평등의 인습에 반항해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확립하려는 주의(삼성문화사, 국어대사전)

33) 여주인공들에 대한 집약된 성격은 田山花袋集(集英社, 昭和49)의 注解참고. 고영자, 「일본자연주의문학의 특질-田山花袋의 「蒲団」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2집, 한국일어일문학회, 1981, pp.192~193. 재인용

의미는 단지 그녀가 신식 머리스타일을 하고 신식의복을 입고 문학을 지망하며 자유연애를 한다는 것밖에는 없다. 서구 근대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자유, 사회제도, 학문, 종교 등의 분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가타이가 신여성으로서 그리고 있는 요시코는 그런 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타이가 의미하는 신여성은 자유연애를 하고, 이성간의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자각이란 자성(自省)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의지나 자아를 내세워서는 곤란해. 자신이 한 일에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각오가 없어서는.”(3장, p26)

「けれど自覚というのは、自省ということをも含んでおるですからな、無闇に意志や自我を振廻しては困るですよ。自分の遣ったことには自分が全責任を帯びる覚悟がなくては。」(3章, p.19)

옛날 사람들이 여자의 정조를 단속한 것은 사회도덕의 제재보다는 오히려 여자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 한 번 몸을 남자에게 허락하면 여자의 자유가 완전히 깨져 버린다는 점, 서양의 여자는 그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교제를 해도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점, 일본의 신여성도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등이 주된 교훈의 제목이었지만, 특히 새로운 타입의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통절하게 얘기했다.(6장, p74~75)

古人が女子の節操を誡めたのは社会道徳の制裁よりは、寧ろ女子の独立を保護するためであるということ、一度肉を男子に許せば女子の自由が全く破れるということ、西洋の女子はよくこの間の消息を解しているから、男女交際をして不都合がないということ、日本の新しい婦人も是非ともそうなら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ことなど主なる教訓の題目であったが、殊に新派の女子ということに就いて痛切に語った。(6章, p.61)

여기서 도키오가 말하는 자각이나 자성이란 말이 남녀의 자유로운 연애 관계에서 생성되는 이성있는 행동을 전제로 한 교훈적인 말투임을 미루어 볼 때, 신여성의 자각이란 다름 아닌 이성간의 책임있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입센의 작품이 문명비평이나 도덕변혁, 인간 갈등의 필연적 비극과 같은 근대적 비극을 내포하고 있음에 비해 『이불』에서는 단지 중년의 도키오가 젊은 요시코에 대한 소박한 동경만으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타이가 노라이즘을 『이불』에 이식할 의도로서 여성의 자각론에 대한 인간갈등의 자연주의적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가타이가 살고 있던 메이지 사회의 시대정신의 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³⁴⁾

또한 외국문학은 도키오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판단을 내리거나 할 때에 거의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외국문학의 어떤 구체적인 작품이 나타난다. 도키오가 사색하거나 공상에 잠길 때, 또는 고민하는 도키오의 곁에는 하우스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이 있거나 모파상의 『죽음보다 강하다』가 있거나 투르게네프의 『푸닌과 바부린』이 있거나 하여 작품은 때때로 변하지만, 그러한 때 공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도키오는 자신의 현재를 외국소설의 세계에 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키오는 자신의 신상에 일어난 사태를 이전에 읽은 적이 있거나 현재 읽고 있는 서양소설 속에서 그 구체적인 범례를 찾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도키오의 동경, 그것은 물론 요시코를 하이칼라³⁵⁾ 신시대의 여자로 키워

34) 고영자, 「일본자연주의문학의 특질-田山花袋의 「蒲団」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2집. 한국일어일문학회, 1981, p.193.

35) high collar: 서양에 갔다 온 사람들이 깃이 높은 칼라를 착용하고 있던 데서 나온 말로 모든 것이 서양풍으로 새로운 것, 또는 그런 유럽풍이나 도회풍을 자처하거나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킨

내어 그녀와의 연애를 성취하는 것에 의해 문학자에게 알맞은 이상적인 생활, 문학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것에 있지만, 그것에 지침을 부여하여 꿈의 실현으로 향하게 인도하는 것은 외국문학을 빌지 않고는 없는 것이다. 즉, 서양의 소설은 결국 현재의 도키오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표준양식으로, 도키오는 문학이라는 범례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된 인간, 문학의 관념을 통해서 밖에 육신의 현실과 연관될 수 없게 되어 버린 인간, 즉 문학을 의심하지 못하고 문학 안에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인 것이다.³⁶⁾ 그러한 의미로 도키오는 진정한 문학자인 것이다.

2.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서의 고백



『이불』의 첫머리는 모든 것이 끝난 시점, 즉 현재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해 가는 형태로 서술되어지고 있는데, 도키오가 여제자 요시코에게 애인이 생긴 것을 알고 괴로워하며 독백하는 대목으로 시작된다.

“이것으로 나와 그녀와의 관계는 일단락 되었다. 서른 여섯이나 되었고 자식도 셋이나 있으면서 그런 일을 생각하고 궁리했던가 하고 회상하니 어이가 없다. 그러나....그러나.....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그 정도의 애정을 나한테 쏟았던게 단지 정 때문일 뿐이고 사랑은 아니었던가.” 수많은 감정을 담은 편지 -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래도 세상에 흔히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처자식이 있고 세상의 눈이 있고 사제관계였기 때문에 감히 열렬한 사랑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얘기할 때의 가슴 설렘, 서로 바라보는 눈빛, 그 깊은 곳에는 분명히 무시무시한 폭풍이 즉시 세력을 뻗쳐, 처자식도 세상도 도덕도 사제관계도 일거에 깨뜨려 버

다.

36) 小仲信孝, 「〈文學〉の裏切り-『蒲団』と自然主義-」, pp.134~135.

리고 말 것이라 생각되었다. 적어도 남자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중략)…그런 심리 때문에 그녀는 실망하여 이번과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때는 지나갔다. 그녀는 이미 타인의 소유다!” 걸으면서 그는 이렇게 절규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1장, pp.8~10)

「これで自分と彼女との關係は一段落を告げた。三十六にもなって、子供も三人あって、あんなことを考えたかと思うと、馬鹿馬鹿しくなる。けれど……けれど……本当にこれが事實だろうか。あれだけの愛情を自身に注いだのは單に愛情としてのみで、恋ではなかったろうか。」數多い感情づくめの手紙——二人の關係はどうしても尋常ではなかった。妻があり、子があり、世間があり、師弟の關係があればこそ敢て烈しい恋に落ちなかったが、語り合う胸の轟、相見る眼の光、その底には確かに凄じい暴風が潜んでいたのである。機会に遭遇しさえすれば、その底の底の暴風は忽ち勢を得て、妻子も世間も道徳も師弟の關係も一挙にして破れてしまうであろうと思われた。少くとも男はそう信じていた。…(中略)…そういう心理からかの女は失望して、今回のような事を起したのかも知れぬ。「とにかく時機は過ぎ去った。かの女は既に他人の所有だ！」歩きながら渠はこう絶叫して頭髪をむしった。(1章, pp.6~7)

이렇듯 주인공 도키오의 독백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한 중년남성이 젊은 미모의 여제자에게 느끼는 사랑과 질투, 집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애증과 질투는 전 장을 통하여 전개되며, 그녀를 향한 폭풍 같은 사랑을 고백형식으로 서술해 나간다.

다카하시 도시오(高橋敏夫)는 그의 논문에서 “『이불』에는 폭풍이 몇 번 나타난다. 게다가 그것은 단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질서를 일거에 해체시켜 버릴 폭풍의 예감에서 시작되어, 그러나 그 도래는 예감조차 멀리 있을 때 실제의 폭풍이 격렬하게 불어온다 - 그 같은 폭풍에 의해 훌륭한 만큼 단락지어진 이야기이다”라고 서두에 제시하며 “무시무시한 폭풍의 예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정신적인 사랑을 넘은 격렬한 육체적 사랑의 예

감,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도키오는 일상의 질서를 벗어나 어제의 도키오가 아니게 된다는 예감³⁷⁾이다. 그러한 육체적 사랑의 예감은 여제자에게 애인인 다나카 히데오(田中秀男)가 나타남에 따라 소멸되어 버리지만, 그녀에 대한 도키오의 사랑은 폭풍에 비유될 만큼 격렬한 것이었다.

그의 이 폭풍 같은 사랑은 삼 년 전 그녀를 만나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그녀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름은 다케나카 도키오(竹中時雄)라 했다. 지금으로부터 삼 년 전, 세 번째 아이가 아내 뱃속에 생겨 신혼의 쾌락 따위는 이미 다 식어 버렸을 무렵이었다. 세상의 분주한 사업도 의미가 없고, 필생의 사업(Lifework)에 진력할 용기도 없이, 일상의 생활 -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여 오후 네시에 돌아와, 언제나 똑같이 아내의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자는 단조로운 생활에 정말로 싫증이 나 있었다....(중략)... 길을 걸으면 언제나 만나게 되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할 수만 있다면 새로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다....(중략)...출근하는 도중에, 매일 아침 마주치는 아름다운 여교사가 있었다. 그는 그 무렵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을 그날 그날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마음껏 그 여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상을 했다.(2장, pp.14~15)

渠は名を竹中時雄といった。今より三年前、三人目の子が細君の腹に出来て、新婚の快樂などはとうに覺め尽した頃であった。世の中の忙しい事業も意味がなく、一生作に力を尽す勇氣もなく、日常の生活——朝起きて、出勤して、午後四時に帰って来て、同じように細君の顔を見て、飯を食って眠るという單調なる生活につくづく倦き果ててしまった。...(中略)...道を歩いて常に見る若い美しい女、出来るならば新しい戀を爲たいと痛切に思った。...(中略)...出勤する途上に、毎朝邂逅う美しい女教師があった。渠はその頃この女に逢うのをその日その日の唯一の樂みとして、その女に就いていろいろな空想を逞うした。(2章, pp.10~11)

37) 高橋敏夫, 「『蒲団』 - “暴風” に区切られた物語-」,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1』, 學術文獻刊行會, 1985, p.691.

위와 같이 다케나카 도키오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 싫증을 느끼고, 아내에게서도 권태를 느껴 새로운 사랑을 갈망하거나 출근길에 마주치는 여교사와의 사랑을 상상하면서 30대 남성이 흔히 가지는 외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도키오에게 신식교육을 받고 하이칼라한 미모의 여성인 요시코의 출현은 도키오가 항상 동경해 마지 않던 신여성의 출현이었다. 미션스쿨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며 자유로운 문학생활로 이상을 키운 메이지 시대의 신여성인 요시코는, 도키오에게 출근길에 마주치던 여교사나 새로운 사랑의 대상으로서 갈망하던 여성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젊고 아름다운 신여성인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아내가 있다.

옛날의 연인 - 지금의 아내. 예전에는 연인이었음에 틀림없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사오년 이래의 여성교육의 발흥, 여자대학의 설립, 히사시가미, 에비차바카마, 남자와 나란히 걷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이런 세상에서 구식의 마루마게, 오리와 같은 걸음걸이, 온순과 정절 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아내에게 만족하는 것이 도키오에게는 무엇보다도 한심스러웠다.(2장, p.20)

昔の恋人——今の細君。かつては恋人に相違なかったが、今は時勢が移り変った。四、五年來の女子教育の勃興、女子大學の設立、庇巒、海老茶袴、男と並んで歩くのをはにかむようなものは一人も無くなった。この世の中に、旧式の丸鬘、泥鴨のような歩きぶり、温順と貞節とより他に何物をも有せぬ細君に甘んじていることは時雄には何よりも情けなかった。(2章, p.15)

여기서 도키오는 신교육을 받고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배운 메이지 신여성인 여제자 요시코를 신(新)으로 배분하고, 그에 대립되는 아내를 구(旧)로 배분하여, 강렬하게 신(新)으로의 갈망으로 향하게 된다. 이 신(新)에

요시코가 배분되어 구(舊)로의 일상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욕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구(舊)의 일상에 폐색되어 있으면서 신(新)을 갖고 확인하고 있는 도키오를 중심으로, 신(新)인 요시코와 구(舊)인 아내의 배분은 실로 냉혹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시코의 행동, 말, 의상, 액세서리, 또 관념의 모든 것은 아내의 그것과 대립하며 멈추지 않는 것이다. 다카하시 도시오(高橋敏夫)는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중년(新舊의 중간)인 도키오가 신(新)·구(舊)라는 관념에 고뇌하는 극히 관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관념의 집적이 ‘사실(事實)’이라고 칭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적으로도 ‘사실(事實)’로서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라고 맞아들여진 것을 생각하면 『이불』을 ‘사실(事實)’이라는 허구성립의 한 장면이라고 보기보다는 허구 또는 관념이 사실화(事實化)해 가는 시대, 확실히 문학적 근대의 성립을 고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음에 틀림없다”³⁸⁾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구(舊)로 대표되는 자신의 아내와 정반대로 신(新)으로 상징되는 여제자 요시코의 상경은 중년의 도키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고 그의 고독한 일상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요시코는 처음 한 달 정도는 도키오의 집에서 임시로 기거했다. 화려한 목소리, 요염한 모습, 지금까지의 고독하고 외로운 그의 생활과 얼마나 대조적인가!...(중략)...문을 열면 현관에는 그 아름다운 웃음 띤 얼굴, 색채가 풍부한 모습, 밤에도 지금까지는 애들과 함께 아내가 정신없이 잠들어 버려, 6조방에 쓸데없이 환하게 켜 있는 램프도 오히려 쓸쓸함을 더해 주는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밤늦게 돌아와도 램프 아래서 하얀 손이 솜씨 있게 뜨게바늘을 움직이고 무릎 위에는 색깔 있는 둥그런 털실 뭉치! 즐거운 웃음 소리가 우시고메의 후미진 곳에 있는 낮은

38) 앞의 글, p.693.

잡목 울타리 안에 가득했다.(2장, pp.21~22)

最初の一月ほどは時雄の家に仮寓していた。華やかな声、艶やかな姿、今までの孤独な淋しいかれの生活に、何らの対照!…(中略)…門をあけると、玄關にはその美しい笑顔、色彩に富んだ姿、夜も今までは子供とともに細君がいぎたなく眠ってしまって、六畳の室に徒に明らかな洋灯も、かえって侘しさを増すの種であったが、今は如何に夜更けて帰って来ても、洋燈の下には白い手が巧に編物の針を動かして、膝の上に色ある毛糸の丸い玉! 賑かな笑声が牛込の奥の小柴垣の中に充ちた。(2章, p.16)

여기서는 딸에서 아내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 변해가는 여성의 변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시각과 이해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미소녀를 동경하는 센티멘탈리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타이의 면모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도키오의 일상생활은 요시코의 출현으로 신혼 때와 같은 즐거움을 선사하며 도키오 자신이 그토록 원해왔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러나 도키오가 신여성인 요시코에게 매혹되는 것은 단지 상대가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데서 오는 애욕적인 것일 뿐, 요시코에게서 신여성으로서 어떤 뚜렷한 개성을 발견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단지 구식여성인 “구식의 마루마계³⁹⁾와 오리와 같은 걸음걸이, 온순함과 정절 외에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아내”와 대조되는 신여성으로 신식머리를 하고 신식 옷을 입고 문학 지망생이며 남녀간의 연애를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서슴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 외에는 요시코를 신여성으로 내세울 만한 뚜렷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시코로 인한 새로운 삶의 즐거움은 한 달이 못되어 불가능함을 깨닫고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도키오는 요시코를 아내의 언니 집에 기숙시키기로 한다.

39) 결혼한 여자가 밋는 일본식 트레머리.

아내가 점차 편치 않은 기색을 보였고, 아내의 친정 쪽에서도 그 일을 문제 삼아 조사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키지 않았지만, 처가 쪽 사람들과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고 싶어 요시코를 아내의 언니 집에 머무르게 하며, 거기에서 고지마치의 어느 여자학관에 통학시키기로 한다.

요시코는 아내의 언니 집에 머물면서 두 번 고향에 다녀오게 되는데, 한번은 여름방학 때이고, 두 번째는 신경쇠약으로 때때로 경련을 일으켜서이다. 고향으로 돌아가 휴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말에 따른 것이었는데, 요시코는 신경과민으로 머리가 아플 때는 취소(臭素)가리⁴⁰)를 병으로 사다 놓고 먹고 있었다.

사월에 들어서서 요시코는 자주 앓아 얼굴이 창백해지고 신경과민 증세를 보였다. 취소가리를 다량으로 먹어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어 애를 먹었다. 끊이지 않는 욕망과 생식력은 한창 때의 여자를 유혹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요시코는 자주 약을 먹고 있었다.(3장, p.29)

四月に入ってから、芳子は多病で蒼白い顔をして神経過敏に陥っていた。シュウソカリを余程多量に服してもどうも眠られぬとて困っていた。絶えざる欲望と生殖の力とは年頃の女を誘うのに躊躇しない。芳子は多く薬に親しんでいた。(3章, p.22)

위와 같이 화자는 요시코의 신경과민이 생리적인 성적 욕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신경증, 히스테리라는 병이 “시대의 추이에 따라 그 증상도 문화적 사정도 변화하는 병”⁴¹)인 것은 오늘날에는 잘 알려진 사실로 되어 있다. 또 야마모토 요시아키(山本芳明)는 『히스테리의

40) potassium bromide. 취소와 칼륨의 화합물로서 진정제, 수면제로 사용됨.

41) エレイン・ショーウォーター, 『心を病む女たち』(山田晴子・蘭田美知子訳, 朝日出版社 1990)p.25.; 藤森清, 「『蒲団』における二つの告白—誘惑としての告白行爲—」, 『日本近代文学』, 日本近代文学会, 1993, p.23에서 재인용

시대』속에서 이러한 병을 둘러싼 언설에는 “여성들의 갈등과 저항을 봉하
려고 하는 제도적 언설”⁴²⁾의 문제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화자는 요시코의 신경과민 증상이 두 번에 걸쳐 도키오를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요시코는 자
기의 채워지지 않는 성적인 고민을 처음에는 편지로 써서 도키오에게 보냈
고, 한번은 요시코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방문한 도키오를 유혹하는 것으로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요시코는 애인 다나카 히데오
를 사귀면서 신경증은 해소될 수 있었다. 요시코에게 다나카라는 새로운
애인이 생긴 이후 요시코의 신경과민에 대한 서술은 『이불』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도키오에게 있어 두 번의 기회를 붙잡는 것을 주저한 것은 앞으
로 있을 세 번째, 네 번째의 기회를 기다려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생활을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새로운 사랑과 운명에 대한 갈망으로서의 고백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에서 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도키오의 소심함과 겁 많음이다.

그의 경험 가운데에는 이러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다. 한발자국 차
이로 운명의 한복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가장자리를 맴돌게 된
외로움, 그 괴로움을 그는 언제나 맛보았다. 문학에서도 그랬고 사회에
서도 그랬다. 사랑, 사랑, 사랑, 지금도 이런 소극적인 운명으로 표류하

42) 『学習院大学文学部研究年報』36, 1989/3; 藤森清, 「『蒲団』における二つの告白—誘惑としての告白行爲—」, 『日本近代文学』, 日本近代文学会, 1993, p.23에서 재인용

고 있는가 생각하니, 자신의 무기력과 운명의 어리석음이 바싹바싹 마음을 죄어왔다.(3장, p.32)

かれの経験にはこういう経験が幾度もあった。一步の相違で運命のただ中に入ることが出来ずに、いつも園外に立たせられた淋しい苦悶、その苦しい味をかれは常に味った。文学の側でもそうだ、社会の側でもそうだ。恋、恋、恋、今になってもこんな消極的な運命に漂わされているかと思うと、その身の意氣地なしと運命のつたないことがひしひしと胸に迫った。(3章, pp.24~25)

위와 같이 주인공이 겁 많고 소심한 인간이 아니었다면, 과거에 두 번 다가온 그 기회를 잃는 것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기력함, 운명의 어리석음은 당연히 상관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발의 차이로 운명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가장 자리를 맴돌게 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키오의 무기력함, 결국 그 소심하고 겁 많은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새로운 삶으로의 꿈을 망상으로 끝나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 도의심, 양심에 의한 자기억제를 들 수 있다.

그는 성격상 무엇에 제정신을 잃고 폭 빠질 수 없는 어떤 힘을 갖고 있다 이 힘에 지배당하는 것을 언제나 분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새 지고 만다. 정복되고 만다. 이 때문에 그는 언제나 운명의 권외에 서서 괴로움을 맛보게 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올바른 사람, 신뢰하기에 족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4장, p.35)

渠は性として惑溺することが出来ぬ或る一種の力を有っている。この力のために支配されるのを常に口惜しく思っているのではあるが、それでもいつか負けてしまう。征服されてしまう。これがため渠はいつも運命の園外に立って苦しい味を嘗めさせられるが、世間からは正しい人、信頼するに足る人と信じられている。(4章, p.27)

성격상 무엇에 폭 빠질 수 없는 일종의 힘이라는 것은 소심함 때문이 아니라 윤리감에 의한 자기억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한 번의 기회, 즉 요시코의 “편지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잠자는 아내의 얼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자기의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었는가를 스스로 책망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보낸 편지는 엄격한 스승으로서의 태도였다”(3장, 28)라는 행문에 의해 관찰된다. 주인공을 항상 “운명의 가장자리”에 맴돌게 한 요인의 하나이다. “세상에서는 올바른 사람, 신뢰하기에 족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억제력에 대해서도 타자의 눈에 투사된 자기 양심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타자의 눈에 의한 자기억제, 양심에 의한 자기규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배제해서 살수 없는 것이다. 도키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많은 인간의 모습인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도키오의 경우 연령에 의한 콤플렉스이다.

“젊은 새는 젊은 새가 아니면 안된다. 우리들은 이제 이 젊은 새의 관심을 끌 아름다운 깃털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자, 형언할 수 없는 서글픔이 강렬하게 마음을 엄습했다.(6장, p.76)

「若い鳥は若い鳥でなくては駄目だ。自分らはもうこの若い鳥を引く美しい羽を持っていない。」こう思うと、言うに言われぬ寂しさがひしと胸を襲った。(6章, p.62)

위와 같이 “우리들은 이제 이 젊은 새의 관심을 끌 아름다운 깃털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연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콤플렉스가 요시코에 대한 사랑을 겁내게 하고, 그 희망의 구차함을 인상 깊게 한다. 도키오에 있어서 처자가 있고 “아름다운 깃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장애가 거꾸로 금지된 몽상을 환기시키고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 금지하며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한층 그 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 어긋난 인간심리인 것이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요시코에게는 다나카라는 새로운 애인이 생겨 자신은 요시코의 사랑에서 소외되는 입장에 있게 된다. 이것은 그가 생각에서 그리고 있었던 이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랑의 환상이 그에게 부여하고 있었던 남성으로서의 주체성의 붕괴위기일 것이다.

『이불』은 타락 여학생, 여제자라고 하는 과도한 욕망의 시선을 요시코라는 여성에게 부여하는 남자들의 이야기이고, 그녀의 소유를 둘러싼 세명의 남자(도키오, 다나카, 요시코의 아버지)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⁴³⁾ 새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의 뒤편에 있는 여성을 물건화하여 소유하려고 하는 도키오의 욕망이기도 하다. 도키오의 남성으로서의 자기위치는 새로운 사랑의 상대, 결국 이성을 거울로 해서 지탱되고 있었던 것이지만, 새로운 사랑에서 문학으로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 도키오에게는 요시코를 잃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새로운 문학으로의 시도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남성으로서의 주체성이 문학자로서의 주체성과 겹치는 것은, 요시코에게 애인이 생긴 것을 안 도키오의 사랑의 소외감이 문학적 입장의 소외감과 겹쳐져 이야기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43) 光石由美, 「〈性〉的現象としての文學—性欲描写論—and 田山花袋「蒲団」一, 『日本文學』, 日本文學協會編集・刊行, 1999/6, p.35.

3. 질투와 위선적 지식인으로서의 고백

미모의 여제자 요코야마 요시코의 출현은 긴 세월동안 고독한 생활을 해 온 도키오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위안을 안겨 주었다. 문학에 있어서의 고독과 생활에서의 고독이 요시코로 인하여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 도키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위로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오래가지 않아 요시코에게는 다나카라는 애인이 생기고 그로 인해 도키오는 요시코의 사랑에서 소외되는 입장에 있게 된다. 사랑하는 여제자의 사랑을 잃게 되는 도키오는 질투심과 아쉬움과 회한이 교차하며 저녁상에서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며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쓰러져 자거나 낮부터 술을 마시며 유치한 신체시를 읊다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화장실에 들어가 누워버리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준다.

갑자기 이불을 뒤에서 끌어 당겼기 때문에, 이불은 화장실 입구에서 아내의 손에 남았다. 도키오는 비틀비틀하며 위태롭게 소변을 보고 일이 끝나자, 갑자기 벌렁 화장실안에 누워 버렸다. 아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여 자꾸 흔들기도 하고 뭐가 하기도 했지만, 도키오는 움직이려고도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잠든 것은 아니고, 적토와 같은 얼굴에 크고 날카로운 눈을 뜨고, 문밖에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꿈쩍않고 보고 있었다.(3장, p.34)

突如蒲団を後から引いたので、蒲団は廁の入口で細君の手に残った。時雄はふらふらと危く小便をしていたが、それがすむと、突如鞆と廁の中に横に寝てしまった。細君が汚がって頻りに揺ったり何かしたが、時雄は動こうとも立とうともしない。そうかといって眠ったのではなく、赤土のような顔に大きい鋭い目を明いて、戸外に降り頻る雨をじっと見ている。(3章, pp.26~27)

위와 같이 도키오가 요시코에게 애인이 생긴 것을 알고 실망하여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키오는 요시코를 만나러 상경한 다나카를 마중나간 요시코에게 강한 질투심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이번 여름방학에 스마에서 서로 만났을 때부터 육체관계를 맺어, 교토에서의 행위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고, 이번도 그리움에 못 이겨 여자 뒤를 쫓아 상경한 것인지도 모른다. 손을 잡았겠지, 가슴과 가슴이 서로 접촉했겠지, 남이 보지 않는 여관 이층방,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더러워지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도 순간이다.(4장, pp.39~40)

この夏期の休暇に須磨で落合った時から出来ていて、京都での行爲もその望を満す爲め、今度も恋しさに堪え兼ねて女の後を追って上京したのかも知れん。手を握ったろう。胸と胸とが相触れたろう。人が見ていぬ旅籠屋の二階、何をしているか解らぬ。汚れる汚れぬのも刹那の間だ。(4章, p.30)

위와 같은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 중년남성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유치한 질투를 하기에 이른다. 36세로 처자가 있는 도키오의 입장을 생각하면 위에 그려진 질투의 마음은 역겹기도 하고 비열하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질투의 감정은 입장이 어떻든 또 연령에 관계없이 발현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질투심만큼 인간의 이성을 우롱하여 추악해짐과 동시에 우스꽝스러움을 연출시키는 정념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을 잡았겠지, 가슴과 가슴이 서로 접촉했겠지, 남이 보지 않는 여관 이층방,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연령이나 입장을 잊고 질투심에 희롱되어 흥분하는 중년남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 정확하게 그려졌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인간의 사랑과 질투는 나이를 초월하고, 사제관계의 도리를 초월하고, 이성적인 사고의 기능을 억눌러 이를 수 없는 사랑에 더욱 집착하게 하는 것이다.

나이 어린 여제자에게 애인이 생긴 것을 알고 질투하며 유치한 상상을 하는 이 장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와 지위를 떠나서 사랑에 속박될 수밖에 없는 미약하고 미숙한 존재라는 것을 가타이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투심은 이성을 우롱하여 골계를 연출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요시코에게 도착한 편지를 훑쳐보려고 하는 추악한 행위도 연출시킨다. 키스한 흔적, 성욕의 흔적이 어딘가에 나타나 있지는 않을까. 신성한 사랑 이상으로 두 사람 사이가 진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도키오가 신성한 사랑에 구애 받는 배후에는 질투심이 잠재해 있다. 온정한 보호자라는 것은 그것을 은폐하는 위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인 만큼, 남자는 스스로 자기의 심리를 객관화시킬 만큼의 여유를 갖고 있”(1장, p.9)어,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며 통절하게 질투심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냉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도키오는 이 여름밤의 야경을 어슴푸레하게 눈으로 보면서, 전신주에 부딪혀 쓰러질 뻔하기도 하고, 얇은 도랑에 떨어져 무릎을 꿇기도 하고, 직공 같은 남자에게 “주정뱅이야! 똑똑히 걸어!” 라고 욕을 먹기도 했다. 갑자기 생각난 듯, 언덕 위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이치가야 하치만 경내로 들어갔다. 경내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이 삭막했다. 오래된 큰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뒤덮여 있고, 왼쪽 모퉁이에 커다란 산호수가 우거져 있었다. 여기 저기 밤새도록 켜 두는 등불이 점점 빛을 내기 시작했다. 도키오는 어떻게 해도 괴로워서 갑자기 그 산호수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그 뿌리 근처의 땅위에 몸을 눕혔다. 흥분한 마음, 자유분방한 정과 비애의 쾌감은 극단으로 치달아, 한편으로는 통절하게 질투심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었다.(4장, p.45)

時雄はこの夏の夜景を朧げに眼には見ながら、電信柱に突当って倒れそうにしたり、浅い溝に落ちて膝頭をついたり、職工体の男に、「酔漢奴！しっかり歩け！」と罵られたりした。急に自ら思いついたらしく、坂の上から右に折れて、市ヶ谷八幡の境内へと入った。境内には人の影もなく寂寞としていた。大きい古い樺の樹と松の樹とが蔽い冠さって、左の隅に珊瑚樹の大きいのが繁っていた。廻々の常夜灯はそろそろ光を放ち始めた。時雄はいかにしても苦しいので、突如その珊瑚樹の蔭に身を躲して、その根本の地上に身を横えた。興奮した心の状態、奔放な情と悲哀の快感とは、極端までその力を発展して、一方痛切に嫉妬の念に駆られながら、一方冷淡に自己の状態を客観した。(4章, pp.35~36)

위와 같이 처자가 있는 중년의 도키오가 나이 어린 여제자 요시코에게 흠뻑 빠져, 그녀에게 젊은 애인이 생기자 주체하기 어려운 질투심에 술에 만취하여 이성을 잃고 헤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냉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자가 행복하도록,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하는 것이다.

요시코에 대한 사랑을 통절히 사무치도록 느끼면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인생의 알 수 없는 커다란 비애를 그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슬프다, 정말 통절하게 슬프다. 이 비애는 화려한 청춘의 비애도 아니고, 단지 남녀의 사랑의 비애도 아니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어떤 커다란 비애다. 흘러가는 물, 꽃이 피고 지는, 이 자연의 깊은 곳에 서려 있는 저항할 수 없는 힘 앞에서는 인간만큼 허무하고 비참한 것은 없다.(4장, p.46)

悲しい、実に痛切に悲しい。この悲哀は華やかな青春の悲哀でもなく、

単に男女の恋の上の悲哀でもなく、人生の最奥に秘んでいるある大きな悲哀だ。行く水の流、咲く花の凋落、この自然の底に蟠れる抵抗すべからざる力に触れては、人間ほど儂い情ないものはない。(4章, p.36)

자연주의 선언으로 감상성을 포기한 가타이 문학에 일면 감상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위의 고백의 대목을 두고 치바 미쓰기(千葉貢)는 고백의 진면목으로서 그 내용은 참으로 가타이 문학의 소설이고 철학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⁴⁾ 사실 인간이 진실되게 스스로의 슬픔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소중함도 진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영원 과 비교한다면 생은 한 때의 슬픔이고, 젊음이 소중한 것은 늙어간다고 하는 슬픔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슬픔을 지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슬픔은 스스로가 견디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키오가 체감하고 있는 비애는 단지 남녀의 사랑의 비애가 아니다. 흘러가는 물,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자연의 깊은 곳에 서려있는 저항할 수 없는 힘, 시간의 힘에 촉발된 비애이다. 시간의 힘을 실감할 때 인간 누구도 허무하고 비참한 생각은 어쩔 수 없다.

또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떤 커다란 비애와 겹쳐진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전에 “이 여자를 얻지 못하면 차라리 남양의 식민지를 유랑하리라고 생각할 만큼 열렬한 마음을 품고”(4장, p.46)있었던 아내에의 사랑의 상실이 말해지고 있다.

이 무슨 지조없는 마음인가, 겨우 팔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인데 이다지도 변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으랴... (중략)...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현

44) 千葉貢, 「田山花袋『蒲団』考-「告白」の悲しみ-」, p.210.

재의 사실은 이상하게도 아무런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모순이라도 뭐라도 할 수 없다. 그 모순, 그 지조없음, 이것이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 사실! 사실!” 이라고 도키오는 마음속에서 되뇌었다.(4장, p.47)

何たる節操なき心ぞ、僅かに八年の年月を闊したばかりであるのに、こうも変ろうとは誰が思おう。…(中略)…けれどその胸にある現在の事実は不思議にも何らの動揺をも受けなかった。「矛盾でもなんでも為方がない、その矛盾、その無節操、これが事実だから為方がない、事実! 事実!」と時雄は胸の中に繰返した。(4章, pp.37~38)

눈물이 설새 없이 수염 많은 도키오의 얼굴에 흐르고, 아내와의 사랑이 겨우 8년으로 끝나 황량한 생활로 변해버린 그 모순과 지조 없음에 도키오는 스스로 그 세월의 힘, 자연의 힘의 무서움을 통절하게 느꼈다. 일견 특이하지도 않은 인간심리의 모순, 절조(節操) 없음에 대한 감개이지만, 스스로 체험을 밟으며 파악한 사실의 무게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도키오에게 변심을 초래한 절개와 지조 없음이 인간에게 보편적인 취약성이 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⁴⁵⁾

다나카와 만나는 요시코를 감독상의 이유로 다시 도키오의 집 이층에 데려다 놓고, 도키오는 득의양양해졌다. 애인이 있는 요시코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앞의 요시코에게 마음을 빼앗겨 잠깐의 만족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모습, 현대풍의 히사시가미, 화려한 플란넬에 올리브색의 여름용 오비를 맵시 있게 매고, 조금 비스듬히 앉은 요염한 모습. 도키오는 그 모습을 대하고 일종의 형용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껴, 지금까지의 번민과 고통을 거의 잊어버렸다.(4장, p.53)

美しい姿、当世流の庇鬢、派手なネルにオリイヴ色の夏帯を形よく緊めて、少し斜に坐った艶やかさ。時雄はその姿と相對して、一種狀すべからざる満足を胸に感じ、今までの煩悶と苦痛とを半ば忘れてしまった。(4章,

45) 秋山公男, 「『破戒』 『蒲団』 —苦惱と弱性」,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1』, 学術文献刊行会, 1998, p.419.

p.43)

사라사 침구 한세트를 다른 한 쪽에 놓으려고 했을 때, 코를 자극하는 여자의 잔향으로 도키오는 야릇한 기분이 되었다.(5장, p58)

更紗の蒲団夜具の一組を他の一方に入れようとした時、女の移香が鼻を撲ったので、時雄は変な氣になった。(5章, p.47)

위와 같이 여전히 여제자의 육체적 관능에 즐거워한다. 또한, 요시코의 애인 다나카가 교토로 돌아가고 나서는 더욱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집안은 예전처럼 떠들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거실의 이층에는 요시코가 있어 부르면 곧 대답을 하고 내려온다. 식사 때는 세끼 모두 상을 나란히 하여 단란하게 먹는다. 밤에는 환한 램프를 둘러싸고 떠들썩하고 재미있게 얘기한다. 양말을 짜 준다. 아름다운 웃는 얼굴을 늘 보인다. 도키오는 요시코를 완전히 차지하여 좌우지간 안심도 하고 만족도 했다.(5장, p.60)

居間の二階には芳子が居て、呼べば直ぐ返事をして下りて来る。食事には三度三度膳を並べて団欒して食う。夜は明るい洋灯を取巻いて、賑わしく面白く語り合う。靴下は編んでくれる。美しい笑顔を絶えず見せる。時雄は芳子を全く占領して、とにかく安心もし満足もした。(5章, p.49)

이러한 안정된 생활이 다나카의 재상경으로 일순간에 깨지고, 도키오는 고뇌에 빠진다. 어떤 때는 젊은 여제자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려고 하다가도, 질투심에 못견디어 부모가 있는 고향에 알려 모든 것을 일시에 깨뜨려 버릴까도 생각하지만, 요시코의 귀향을 두려워하는 그는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요시코의 귀향은 그녀와 영영 이별을 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찾아간 다나카는 상상한 것처럼

용모가 수려하지도, 천재풍의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짙 여관에 삼면이 벽으로 되어있는 무더운 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선 그의 시선을 끈 것은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은 탓인지 얄밟게 점잖을 빼고 나이에 맞지 않는 애어른 같은 불쾌한 태도였다. 교토 사투리, 하얀 얼굴, 부드러운 면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이런 남자를 사귄 요시코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특히 도키오가 가장 싫게 느낀 것은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곳은 티끌만큼도 없고, 자기의 약점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변명하려고 하는 긴 연설조의 형식적인 태도였다.

그런 다나카를 앞에 두고 도키오는 요시코의 장래를 위해서 교토로 돌아가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다나카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둘 사이에 요령부득의 대화만 되풀이 되다가 도키오는 되돌아오게 된다. 더군다나 그 두 사람의 온정어린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마음에도 없는 빈말까지 하게 되고 도키오는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웬지 바보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리석은 짓을 한 것처럼 느껴져 스스로 자신을 조소했다.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하고, 자기 마음속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해 온정어린 보호자가 되겠다고 까지 말했던 것을 상기했다. 값싼 번역 일을 알선받도록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것도 상기했다.(6장, pp.72~73)

何だか馬鹿らしいような気がした。愚なる行爲をしたように感じられて、自らその身を嘲笑した。心にもないお世辞をも言い、自分の胸の底の秘密を蔽う爲めには、二人の恋の温情なる保護者となろうとまで言ったことを思い出した。安藤訳の仕事を周旋してもらうため、某氏に紹介の勞を執ろうと言ったことをも思い出した。(6章, 59~60)

자신의 여제자에 대한 사랑을 감추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도키오는 불유쾌를 금할 길 없는 다나카를 앞에 두고 하고 있다. 그것은 도키오

자신의 마음속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이다. 도키오의 위선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 다나카를 위해서 값싼 번역일을 알선받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마음속의 비밀의 은폐를 목적으로 한 위선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선인임을 연기하여 선인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싶은 인간본래의 경박함에서 유래하는 위선성이 거기에서 엿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⁴⁶⁾

다나카의 상경으로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도키오의 심경은 초조하고 편안하지가 않았다. 다나카가 도쿄에 있는 한 요시코를 자기 집 이층에 두고 감독한다 하더라도 이미 온정어린 보호자가 되어 버린 도키오는, 요시코가 다나카와 만나는 일도, 편지를 주고 받는 일도 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써야 할 원고, 서점에서의 원고 재촉, 돈도 벌어야 하는 도키오는 차분한 마음이 되지 않아 붓을 들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따스한 사랑을 볼 때마다 죄없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술을 마시는 등, 안정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음 해를 맞이한다.

그 다음해 1월에 도키오는 촉탁받은 지리책에 관한 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도키오는 출장지인 도네강변에서 요시코로부터 다나카와의 사랑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여 일을 하겠다는 편지를 받고, 더 이상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독을 벗어나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싶다는 대담한 말, 그 말 속에 경계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여 한편으로 두 사람의 육체관계를 의심하고, 한편으론 그들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데 호의를 저버리고 그러한 결심을 한다는 것에 격분한다. 격분한 마음을 달래려 달빛 어슴프레한 도네강 둑위를 걸으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되고, 요시코를 잃고 다시 삭막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회

46) 앞의 글, p.417.

한과 비통합, 그리고 요시코의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그는 진지하게 요시코의 사랑과 그 일생을 생각했다. 두 사람이 동거한 후의 권태, 피로, 냉혹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일단 남자에게 몸을 맡긴 뒤의 여자의 가련한 처지를 동정했다. …(중략)… 진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7장, pp.88~89)

かれは真面目に芳子の恋とその一生とを考えた。二人同棲して後の倦怠、疲労、冷酷を自己の経験に照らしてみた。そして一たび男子に身を任せて後の女子の境遇の憐むべきを思い遣った。…(中略)…真面目なる解決を施さ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氣になった。(7章, pp.73~74)

위와 같이 자신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두 사람의 동거 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도키오는 요시코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상경하게 하고, 요시코의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다. 그의 진짜 의도는 다나카와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다나카를 교토로 돌려보내고 요시코를 예전처럼 자신의 보호 하에 두려는 속셈이었지만, 다나카의 강경한 주장과 요시코를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는 태도에서 미심쩍은 의혹을 갖게 되고,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요시코에게 두 사람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그 전후의 편지를 보여 달라는 과정에서 두사람의 육체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이 이미 육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도키오는 속았다는 배신감으로 분노하게 되고, 요시코는 자신의 열정이 빛나갔음을 통감하고 스승에게 참회의 편지를 써서 보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매달리려 하지만, 질투심에 격해진 도키오의 마음은 이러한 요시코의 참회의 뜻을 파악할 여유도 없이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갈 것을 종용한다.

다음날 아침, 다나카는 대세가 이미 결정된 것도 모르고 자신의 귀향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려 도키오의 집을 방문하고, 도키오는 득의양양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니, 이미 그 문제는 결말이 났네. 요시코가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했네. 자네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네. 대단히 신성한 사랑이더군.”(10장, p.115)

「いや、もうその問題は決着したです。芳子が一伍一什をすっかり話した。君らは僕を欺いていたということが解った。大変な神聖な恋でした。」(10章, p.95)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고 더럽혀져 있다면 보통 고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도키오는 득의만만한 얼굴을 보이고 있다. 뒤집혀진 질투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키야마 기미오(秋山公男)는 이 대목에 대해 신성한 사랑을 다하지 못한 다나카, 요시코, 두사람에 대한 자학적 복수심의 반조라고 말하고 있다.⁴⁷⁾

드디어 요시코가 밤 여섯 시 고베행 급행으로 아버지를 따라 귀향하게 되고, 도키오는 한편으론 쓸쓸했지만, 또 한편으론 사랑하는 여자를 경쟁자의 손에서 떼어놓은 유쾌함을 다음의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키오의 마음은 격해 있기는 했지만 이전보다는 경쾌했다. 이백여리를 산들이 가로막아 이제 그 아름다운 표정도 볼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형언할 수 없이 쓸쓸했지만, 그 사랑하는 여자를 경쟁자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으로 옮겨놓은 것은 적어도 유쾌한 일이었다. 그래서 도키오는 오히려 쾌활하게 요시코의 아버지와 여러 가지 얘기에 열중했다.(10장, pp.116~117)

時雄の胸は激してはおったが、以前よりは輕快であった。二百余里の山川を隔てて、もうその美しい表情をも見ることが出来なくなると思うと、言うに言われぬ侘しさを感ずるが、その恋せる女を競争者の手から父親の

47) 앞의 글, p.416.

手に移したことは尠くとも愉快であった。で、時雄は父親と寧ろ快活に種々なる物語に耽った。(10章, p.96)

여기서 도키오는 두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유쾌함 속에서 다나카의 다급한 마음과 비탄에 잠긴 요시코와는 대조적으로 요시코의 아버지와 쾌활하게 대화에 열중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사랑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요시코와 다나카의 사랑을 갈라놓는 당대 지식인의 교묘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가타이는 『이불』에서 명확하게 주인공의 자의식을 표출하여 다나카에 대한 혐오감과 질투심을 표출하였다. 이것은 질투심의 추악함, 우스꽝스러움을 노정해서 형상화하려고 기획한 작위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그것은 질투심에 머물지 않고 주인공의 위선성을 나타내려고 한 화자의 자세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리석음, 경박한 취약성은 『이불』의 주인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보편성을 말하려고 가타이는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 성적 인간으로서의 노골적인 고백

『이불』에는 도키오를 통해서 성적 인간으로서의 노골적인 고백이 있다. 그것은 요시코가 자신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나카와 이미 육체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도키오가 분노를 느끼면서도 자신 또한 온갖 추악한 성적 상상 속으로 빠져들어 정신적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고 있었던 정도라면 굳이 그 처녀의 정조를 존중할 것까지는 없었다. 자기도 대담하게 손을 내밀어 성욕을 만족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까지 하늘에 올려놓았던 아름다운 요시코가 매춘부나 뒤흔처럼 생각되어, 그 몸뚱이는 바보스럽고 아름다운 태도도 표정도 경멸하고 싶어졌다. 그날 밤은 번민하느라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9장, pp.108~109)

あの男に身を任せていた位なら、何もその処女の節操を尊ぶには当らなかった。自分も大胆に手を出して、性慾の満足を買えば好かった。こう思うと、今まで上天の境に置いた美しい芳子は、売女か何ぞのように思われて、その体は愚か、美しい態度も表情も卑しむ氣になった。で、その夜は悶え悶えて殆ど眠られなかった。(9章, p.90)

도키오는 위와 같은 성적 욕망을 상상하며 대담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비속하고 노골적인 폭로를 숨김없이 서술한 다야마 가타이의 『이불』에 대해서 오구리 후요(小栗風葉)는 “작가로서 아주 감탄하는 것은 재료가 사실이든 아니든 어찌되었든, 작가의 심적 경력 또는 정(情) 생활을 속이지 않고 꾸미지 않고 고백하고 발표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⁴⁸⁾라고 말하고,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가 “이 한편은 육체적인 사람, 적나라한 인간의 대담한 참회록이다. …(중략)…아름다움, 추악함의 거짓 없는 묘사가 한발을 내딛어 오로지 추악함을 묘사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자연과의 일면은 유감없이 이 한편으로 대표되고 있다. 추악하다고 하는 것은 억누를 수 없는 인간의 야성의 목소리이다. 거기에 이성의 반면을 비쳐서 자의식적인 현대성의 견본을 정시하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공중에게 보여줬다.”⁴⁹⁾ 라고 평한 것도 추악한 구체적인 행위의 전대미문의 묘사에 움직였

48) 『蒲団』合評『早稲田文学』, 明40·10; 土佐亨, 「蒲団の匂い-比較文学的ノート」,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1』, 學術文献刊行会, 1985, p.697. 재인용

49) 「『蒲団』を評す」, 『早稲田文学』, 明40·10; 千葉貢, 「田山花袋『蒲団』考-「告白」の悲しみ-」, 『高崎経済大学論集』, 高崎経済大学学会, 1992, pp.222~223. 재인용

던 것이다.

가타이는 노골적인 성의 고백에 있어서 서구 자연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프랑스의 자연주의 작가 모파상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는데, 그는 모파상의 작품 중 자연주의 색채가 농후한 장편소설 『벨아미』(1885)를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아 당시의 문단(메이지20년대)에 논의를 자아내고 있었던 프랑스 자연주의에 관심을 쏟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자연주의는 인간은 동물이고 의학이나 과학에 의해 인간사는 모두 해명될 수 있다는 속칭 유물론에 입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세속화된 진화론에 의해 개개의 인간의 운명이나 가정, 기타 사회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가타이가 모파상에서 자극받은 것은 이러한 졸라이즘⁵¹⁾의 자연주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작품 속의 극단적인 성의 묘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타이는 모파상의 『벨아미』에 나타난 성의 극단묘사에 충격을 받았으며, 불건전한 작품 속에서도 놀랄만한 인생의 진리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과 인간성 속에 비재하고 있는 일면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주는 프랑스 자연주의에 경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1901년의 『들꽃(野の花)』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요즈음의 문단은 너무나 색조의 경향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중

50) 고영자, 「일본자연주의문학의 특질-田山花袋의 「蒲団」을 중심으로-」, p.186.

51) 과학적 실증주의를 문학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실자에 적용한 프랑스 에밀 졸라(1840~1902)의 자연주의 문학 이념을 말한다. 졸라는 과학적 결정론을 받아들이고 인간을 유전과 환경을 통해 분석했는데, 그는 <실험소설론>(1880)에서 소설가는 상상 속에서 창조해 낸 등장인물에 대해 실험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불행과 범죄의 근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에 의해 《루공 마카르》 총서를 집필했다. (브리टे니커 백과사전)

략)···모과상의 「벨아미」나 플로베르의 「센티멘탈·에티케이션」 등은 자연과의 하나의 악폐를 연상케 하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 불건전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래도 작가의 세세한 주관의 섞여있지 않은 때문에 어디고 대자연의 면모가 보여져서 인생의 귀추가 차분히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메이지의 문단은 이제 좀 색조의 경향을 벗어나 차츰 인생의 비밀이라도 악마의 사어라도 좋으니 각기 그려나가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뚜렷하지는 않다 해도 자연의 면모가 메이지의 문단에 펼쳐져 보여질 것이 아닌가.⁵²⁾

소위 자연주의 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위의 서문은 당시의 부자연스럽기가 극에 달하고 있었던 요괴담과 사실묘사와 심리묘사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히로쓰 류로(広津柳浪)⁵³⁾나 고스기 텐가이(小杉天外)⁵⁴⁾ 등의 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타이는 예술의 목적을 개체를 그려서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을 감지하는데 두려고 한 것이다.⁵⁵⁾ 이것은 다시 “무엇이든지 노골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이든지 진상이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이든지 자연이지 않으면 안된다”⁵⁶⁾고 하는 「노골적인 묘사」(1904)로 발전하여, 어디까지나 자연 및 사실에 입각하여 추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실감을 갖고 쓰려고 하여 작품 『이불』에서 시도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주의 문학은 작가의 신변상황을 그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52) 吉田精一, 『自然主義の研究』上巻, 東京堂, 昭和51, p.310.; 고영자, 「일본자연주의 문학의 특질-田山花袋의 「蒲団」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1981, pp.186~187. 재인용

53) 広津柳浪(1861~1928): 메이지 시대의 소설가로 硯友社동인이다. 『薔菊』으로 문단에서 인정받고 인생, 사회의 암흑면을 그리며 심각소설의 작가로 불렸다. (백과사전 마이ペディア)

54) 小杉天外(1865~1952): 메이지·다이쇼기의 소설가. 줄라 등 프랑스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고 『はつ姿』, 『はやり唄』 등을 쓰고 1903년 『魔風』은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다. (백과사전 마이ペディア)

55) 고영자, 「일본자연주의문학의 특질-田山花袋의 「蒲団」을 중심으로-」, p.187.

56) 田山花袋, 「露骨なる描写」, 明治文学全集67『田山花袋集』, 筑摩書房, 1968, p.201.

작가는 어떠한 것도 소설의 재료로서 그릴 수 있게 되어 성에 관한 것도 그러한 소설의 하나의 재료가 되었다. 예술의 대상이 인생의 전부이고, 성욕은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생의 한 사실인 이상, 인간의 성욕을 직시하는 것은 인간의 진실, 인생의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자연주의 문학은 인생의 암흑면, 인간의 반수적인 모습도 인간의 본질, 본능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한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본능에 지배되어 고뇌하는 모습을 인간의 진실이라 믿고 가능한 한 그것을 적나라하게, 대담하게 묘사하고자 시도한 것을 골자로 한 것이 가타이의 “노골적인 묘사론”⁵⁷⁾으로 가타이는 이러한 묘사론에 입각하여 성의 욕망에 지배되어 번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키오의 추악한 상상은 계속 이어져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요시코가 이층에 머물러 자고 있을 때, 혹시 자기가 살짝 그 이층으로 올라가서 안타까운 사랑을 고백하면 어떨까. 똑바로 앉아서 자기를 충고할지도 모른다.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부르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또 안타까운 내 정을 알아차리고 희생해 줄지도 모른다. 그런데 희생해 준 다 해도 다음날 아침은 어찌될까, 밝은 햇빛을 보고는 정말이지 얼굴을 마주볼 수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그래서, 번민 또 번민, 고뇌 또 고뇌, 수없이 몸을 뒤척이고, 두시, 세시를 치는 시계소리도 들었다.(9장, pp.109~110)

芳子がその二階に泊って寝ていた時、もし自分がこっそりその二階に登って行って、遺棄なき恋を語ったらどうであろう。危座して自分を諫めるかも知れぬ。声を立てて人を呼ぶかも知れぬ。それとも又せつない自分

57) 고영자, 「일본자연주의문학의 특징-田山花袋의 「蒲団」을 중심으로-」, p.188.

の情を汲んで犠牲になってくれるかも知れぬ。さて犠牲になったとして、翌朝はどうであろう、明かな日光を見ては、さすがに顔を合わせるにも忍びぬに相違ない。…(中略)…で、煩悶また煩悶、懊惱また懊惱、寤返を幾度となく打って二時、三時の時計の音をも聞いた。(9章, pp.90~91)

위와 같이 도키오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온갖 추악한 상상을 하며, 번뇌하며 고민한다. 그러나 실행에 옮길 용기는 없어 생각에 그칠 뿐이다. 이것을 두고 평론가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는 “추악한 마음을 쓰고 추악한 사건을 쓰지 않았다”⁵⁸⁾고 평하고 있다.

그리고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당시의 『이불』이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성이 그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때까지 일본문학에서 나타났던 성과는 완전히 다른 성, 억압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 성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 새로움이 가타이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충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었다고 말하고 있다.⁵⁹⁾

게다가 주인공인 중년의 작가, 다케나카 도키오의 풍모나 환경도 가타이와 아주 비슷한 것을 숙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좁은 문단 안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가타이 자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 그대로 『이불』이 추악한 자기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 자연주의 문학을 확립한 효시라고 보고, 또 사소설의 시초라고 하는 통설을 낳은 것이다.

요시코가 아버지에게 이끌려 고향으로 돌아가고, 요시코가 없는 집에는 삼 년 전의 황량한 생활이 다시 찾아왔다. 아이를 야단치는 아내의 목소리에 불쾌감을 느끼며 삼 년 전 옛날 그대로의 고독한 생활로 돌아간 것이

58) 吉田精一, 「解題」, 明治文学全集67 『田山花袋集』, 筑摩書房, 1968, p.390. 재인용

59) 가라타니 고진(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4, p.107.

다. 요시코가 돌아간 닷새째에 요시코에게서 편지가 오고, 그 편지는 언제나의 “그리운 언문일치”가 아닌 예의를 갖춘 소로분(候文)⁶⁰이었다.

“어제 저녁 무렵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으니 안심하시기 바라옵고, 이번에는 참으로 바쁘신 때에 여러 가지로 걱정만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어, 거듭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중략)…야마키타 부근부터 눈이 내렸고, 다타이에서부터의 산길 시오 리, 슬픈 일만 생각나서, 그 유명한 잇사가 읊은, ‘아아 이것이 최후의 거처인가 눈이 다섯 자나 쌓여 있구나’라는 명구가 통절하게 마음에 사무칩니다.”(11장, pp.124~125)

「昨夕恙なく歸宅致し候まま御安心被下度、この度はまことに御忙しき折柄種々御心配ばかり相懸け候うて申訊も無之、幾重にも御詫申上候、…(中略)…山北辺より雪降り候うて、湛井よりの山道十五里、悲しきことのみ思い出で、かの一茶が「これがまアつひの住家か雪五尺」の名句痛切に身にしみ申候、」(11章, pp.102~103)

위와 같이 깎듯하게 예의가 갖추진 소로분(候文)편지가 도키오에게 도착했을 때, 도키오는 처음으로 요시코와의 이별을 확실한 것으로 실감했다. 요컨대 소로분(候文)편지가 이화(異化)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언문일치체는 정말로 “그리운 사람”과 친근감을 갖는 것으로서 도키오와 요시코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한편, 친근감을 느끼는 언문일치는 말할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지향하는 자연주의 문학에 있어 지상명제였다. 오랫동안 목표로 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언문일치체가 자연주의에 이르러 그 ‘있는 그대로’라는 이념으로 강고한 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⁶¹⁾

편지를 받고 도키오는 눈이 많이 내린 시오 리(十五里)의 산길과 눈에

60) そろ(候: …입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문어문의 일종으로 주로 편지에 쓰는 문어체.

61) 高橋敏夫, 「『蒲団』 - “暴風” に區切られた物語-」, p.695.

문헌 산속의 시골마을을 생각했다. 아마 눈에 파문헌 시골마을의 요시코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와 다 이루지 못한 사랑, 아쉬움, 이별, 중년남으로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육체적 욕망 등을 느끼며 그리운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려고 이층으로 올라간다.

헤어진 후 그대로 놔두었던 이층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리운 나머지 희미하게 남은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려고 생각했던 것이다...(중략)...도키오는 책상서랍을 열어 보았다. 머릿기름이 뻥 오래된 리본이 그 안에 버려져 있었다. 도키오는 그것을 집어 냄새를 맡았다. 잠시 후 일어나서 장지문을 열어 보았다. 커다란 버들고리짝 세 개가 가는 삼노끈으로 곧 보낼 짐처럼 묶여 있고, 그 맞은 편에 요시코가 늘 사용하던 이불 - 연두빛 당초무늬의 요와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같은 무늬의 요기가 포개져 있었다. 도키오는 그것을 꺼내었다. 여자의 그리운 머릿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말할 수 없이 도키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요기의 비로드 동정이 눈에 띄게 더러운 곳에 얼굴을 갖다대고, 마음껏 그리운 여자의 냄새를 맡았다. 성욕과 비애와 절망이 홀연히 도키오의 마음을 엄습했다. 도키오는 그 요를 깔고, 요기를 덮고, 차갑고 때묻은 비로드 동정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11장, pp125~127)

別れた後そのままにして置いた二階に上った。懐かしさ、恋しさの余り、微かに残ったその人の面影を偲ぼうと思ったのである。...(中略)...時雄は机の抽斗を明けてみた。古い油の染みたりボンがその中に捨ててあった。時雄はそれを取って匂いを嗅いだ。暫くして立上って襖を明けて見た。大きな柳行李が三箇細引で送るばかりに絡げてあって、その向うに、芳子が常に用いていた蒲団一萌黄唐草の敷蒲団と、綿の厚く入った同じ模様模様の夜着とが重ねられてあった。時雄はそれを引出した。女のなつかしい油の匂いと汗のおいとが言いも知らず時雄の胸をときめかした。夜着の襟の天鵝絨の際立って汚れているのに顔を押し付けて、心のゆくばかりなつかしい女の匂いを嗅いだ。性慾と悲哀と絶望とが忽ち時雄の胸を襲った。時雄はその蒲団を敷き、夜着をかけ、冷めたい汚れた天鵝絨の襟に顔を埋めて泣いた。(11章, pp.103~104)

패자로서의 절망과 육체적 인간으로서의 성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여 요시코가 사용하던 리본에 코를 갖다대고 그녀가 사용하던 이불을 꺼내 여자의 육체의 냄새가 가장 많이 배어 있는 비로드 동정에 얼굴을 대어 마음껏 그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인지도 모른다.

다카하시 도시오(高橋敏夫)는 이 부분에 이르러 시작에서 예감되었던 폭풍이 육체적 사랑의 상대인 요시코의 부재로 인하여 처음으로 도키오에게 육체적 사랑의 노골적인 발로가 행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책상으로부터 리본을 꺼내들고, 요기⁶²⁾를 꺼내고 코를 갖다대어 요시코의 기름 냄새와 땀 냄새를 마음껏 맡으며 이불을 끌어안는다는 주물적 행위가 『이불』 속에서 도키오가 육체적 사랑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의 유일한 행위라는 것이다. 일체가 정지하고 누구의 침입도 거부한 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탄생한 이 육체적 인간은 육체의 부재야말로 육체적이라는 허구 또는 관념의 사실화, 현실화를 『이불』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³⁾

사회에서 차단된 방안에 틀어박혀 대상이 없는 육체에의 애욕이 소용돌이치는 중에서 울고 있는 도키오의 모습은 후의 자연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있는 것은 사회에서 등을 돌리고 차단되어진 방안에서 번뇌하는 인간상이다. 『이불』에서는 전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싸우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차단되어진 방안에서 번뇌하는 인간이 그려진다. 즉 일본 자연주의는 『이불』에 의해 현실을 그리는 리얼리즘 소설이 아니고

62) 숨을 두껍게 넣은 옷 모양의 이불

63) 高橋敏夫, 「『蒲団』 - “暴風” に區切られた物語-」, p.694.

사생활을 소재로 하면서 내면을 그리는 고백소설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⁶⁴⁾

요시다 세이치(吉田精一)는 이 “성욕과 비애와 절망이 홀연히 도키오의 마음을 엄습했다. 도키오는 그 요를 깔고, 요기를 덮고, 차갑고 때묻은 비로드 동정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는 일절에 대해서 음습하고 음침한 오나니즘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다.⁶⁵⁾

그러나 가타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자연주의 문학이 다루려는 주제의 하나인 인간의 본능, 육체적 욕정 등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 보임으로써, 성의 본능에 지배되어 고뇌하는 인간의 약한 모습이 인간의 진실된 모습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겉모습이 아무리 점잖고 문학적 소양이 높은 사람 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64) 안영희, 「『이불』과 일본자연주의」, 『일본어문학』, 제24집. 일본어문학회, 2004/2, p.232.

65) 吉田精一, 「解題」, p.390.

IV. 요코야마 요시코의 고백

『이불』 텍스트에는 여제자 요코야마 요시코(横山芳子)의 고백이 있다. 『이불』에서 화자는 도키오를 초점화하는 것에 의해 도키오의 내면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요시코에 시점을 넣는 것에 의해 요시코의 내면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불』이 사소설로 읽을 수 없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나카무라 미쓰오는 “보통 고백은 자기자신에 대한 반성을 동기로 한다”⁶⁶⁾고 했다. 진정한 고백이란 자기반성과 함께 참회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불』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참회’(9장,p113)라는 말은 요코야마 요시코의 행위를 가리키며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요시코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

요시코는 내면의 표출이나 고백의 수단으로써 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시코의 편지를 중심으로 『이불』 텍스트 내에서 요시코가 무엇을 고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백의 수단으로서의 편지

메이지30년대의 하이칼라 신여성인 요시코는 주로 편지를 쓰는 것에 의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여성이다. 편지는 그녀의 생각이나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요시코가 도키오의 문학적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인연도 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시코와 도키오의 인연은 요시코가 보

66) 나카무라 미쓰오(송현순 역), 『풍속소설론』, p.67.

낸 편지에 의해서 시작되고, 요시코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자, 두통, 세통 열성어린 편지를 보내게 된다. 결국 이와같은 요시코의 열렬한 노력에 탄복하여 도키오는 요시코와 사제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때 이미 요시코는 편지가 갖고 있는 효력에 대한 믿음과 또 자신의 편지의 언설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불』에서 요시코는 주로 편지에 의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며 고백해 나가고, 이 경우 편지의 인용이라는 형태로 그녀의 내면이 표현된다. 이것은 화자는 편지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다나다 데루요시(棚田輝嘉)는 “편지라고 하는 타자의 형식으로 서술시킴으로써 이야기를 지배하는 화자는 교묘하게 자신에게 올지도 모르는 비난을 회피하고 있다⁶⁷⁾”고 말하고 있다.

요시코는 도키오의 제자가 되고 난후, 상경하여 그녀의 목적인 문학자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자학관에 다니며 도키오로부터는 문학수업을 받는다. 투르게네프의 엘레네를 배우고 입센의 노라를 배우며 메이지 신여성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도키오의 이러한 가르침이 요시코는 무엇보다 의미가 깊고 기독교의 가르침보다 더 자유롭고 권위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도키오에 대한 사모의 마음은 깊어만 간다. 메이지 신여성으로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유연애를 동경하는 마음이 요시코의 마음에 가득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시코는 신경과민으로 자주 아프게 되고 요양 차 고향에 가게 되는데, 그러한 와중에 다나카 히데오라는 동지사(同志社)⁶⁸⁾ 수재와 연애

67) 棚田輝嘉, 「田山花袋「蒲団」-語り手の位置・覚え書-」, 『国語国文』, 京都大学国文学会, 1987, p.8.

68) 1875년 교토에 창립된 기독교 계열의 학교. 1912년 동지사 대학으로 개칭. (広辞苑)

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함께 교토 사가(京都嵯峨)로 유람을 가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도키오가 알게 돼 스승 앞에서 그 신성한 사랑을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요시코의 연애는 스승인 도키오에게 혹시 요시코와 다나카의 사랑이 육체적 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는지 라는 불안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요시코가 다나카와 함께 교토 사가(京都嵯峨)로 동행한 일은 이후 『이불』 텍스트에서 커다란 사건이 되어 요시코는 도키오에게 그 전말을 편지로 고백하게 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나다 데루요시(棚田輝嘉)는 『이불』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의 재현으로서의 고백소설도 아니고, 여제자에의 생생한 감정의 고백도 아닌, 젊은 두 남녀의 육체관계라는 “사실=범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창조된 허구의 이야기⁶⁹⁾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요시코와 다나카의 연애는 외면상 ‘온정어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떠맡게 된 도키오에게 일종의 불안감을 안겨준다. 도키오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은밀히 감시하게 되고, 요시코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도키오에게 자신들의 사랑의 보호자가 되어 줄 것을 간청하게 된다. 요시코는 도키오에게 그녀의 내면을 토로하는데 주로 편지를 이용하고 있다. 사제시간인 요시코와 도키오가 굳이 편지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코는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녀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요시코는 편지라는 의미작용의 형식의 효과에 충분히 의식적이고 자신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숙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편지의 문구로 미루어 그 감정과 생각의 표현이 능숙한 것은 놀랄 만할

69) 棚田輝嘉, 「田山花袋「蒲団」-語り手の位置・覚え書-」, p.12.

정도”(2장,p16)의 필자이고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편지를 많이 쓰는”(3장,p24) 요시코는 이 텍스트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숨겨 있는 편지를 쓰는 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후지모리 기요시(藤森清)는 요시코가 새로운 여성의 전략으로서 편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편지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와 비교하면 확실한 것처럼 본래 타자 지향적이고 구두발화와 비교하면 명백한 것처럼 표현성이 강한 커뮤니케이션 형식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는 구조화된 표현으로서 자연히 수신자·발신자의 관계의 본질을 응변적으로 말해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편지를 쓴다는 행위는 편지에 있어서 수신자인 독자가 지금 현재 없다는 사실로 편지를 쓰는 필자에게 일종의 자유를 부여하게 되는데, 필자는 부재의 수신자를 자기가 바라는 역할로서의 독자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수신자·발신자의 관계를 표현으로서 만들어내는 자유가 부여된다고 말하고 있다.⁷⁰⁾

또한 후지모리 기요시(藤森清)는 요시코가 전략적으로 편지를 이용하여 내면을 말하는 것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서 지배적인 입장에 서는 것을 허락받고 싶다는 욕망, 즉 유혹하게 되는데, 이 유혹관계 속에서 요시코는 도키오를 설득가능한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유혹은 문자 그대로 도키오를 남자로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정어린 보호자”로서 구풍의 완고한 아버지를 설득시켜줄 존재로서, 요시코는 도키오를 가부장 제사회에서의 그녀의 교두보, 하나의 발판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⁷¹⁾

70) 藤森清, 「『蒲団』における二つの告白—誘惑としての告白行為—」, p.26.

71) 앞의 글, pp.27~28.

2. 고백의 내용으로서의 참회

요시코의 고백은 언문일치의 세통의 편지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다.

첫 번째 편지는 요시코의 애인 다나카가 상경한 것에 대한 상담의 편지이고, 두 번째는 다나카와의 사랑을 인정해 달라는 편지, 세 번째는 다나카와의 육체관계를 고백한 것을 쓰고 있다.

첫 번째 편지는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시간에 마중갔던 것입니다”라는 말과 같이 다나카를 마중나간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고 있고, 두 사람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준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말과 결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할 일이 없었다는 것을 변명하며 다나카와의 관계가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시간에 마중 나갔습니다. …(중략)… 선생님께서 자비로운 말씀을 해 주신 일, 장래까지도 저희 두 사람의 신성하고 진지한 사랑의 증인도 보호자도 되어 주실 거라는 얘기 등을 들려주자, 다나카는 선생님의 인정에 대단히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략)… 만일의 경우에는 지난 번 사가에 함께 간 친구를 증인으로 세워, 두 사람 사이에 결코 부정할 일이 없었음을 변명하고, (4장, pp37~38)

先生、許して下さい。私はその時刻に迎いに参りましたのです。…(中略)…先生のお情深い言葉、将来までも私ら二人の神聖な真面目な恋の証人とも保護者ともなって下さるということを話しました処、非常に先生の御情に感激しまして、感謝の涙に暮れました次第でございます。…(中略)…万一の時にはあの時嵯峨と一緒に参った友人を証人にして、二人の間が決して汚れた關係の無いことを弁明し、(4章, pp.28~29)

위와 같이 요시코는 다나카를 마중나간 일, 두 사람 사이가 결백하며,

또한 두 사람은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결코 남에게 오해받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주장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세 번째의 편지에서 밝혀지게 된다. 실제 두 사람은 이미 육체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실은 도키오가 세 번째 편지에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다나다 데루요시(棚田輝嘉)가 “타자의 말의 인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두 사람의 육체관계의 부재라는 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⁷²⁾라고 말하는 것처럼, 화자는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텍스트와는 다른 지점에 서있고, 육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편지라고 하는 텍스트의 전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시코의 편지는 두 사람의 육체관계를 도키오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은폐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특히 자신의 스승인 도키오에게 “신성하고 진실한 사랑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 편지로 고백하고 부탁하는 것이 유리한 계책이라고 생각한 요시코의 책략인 것이다. 이 책략은 도키오가 두 사람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는 것에 의해 성공하지만, 그것은 요시코가 진실을 왜곡한 것에 의해 성공한 것이다.⁷³⁾

두 번째의 편지는 요시코가 출장 가있는 도키오의 여관으로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요시코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여 다나카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선생님,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서에도 여자는 부모를 떠나 남편을 따르라고 써 있듯이, 저는 다나카를 따르려고 생각합니다...(중략)...제가 사랑을 부모님의 형편에 따라 하는 그런 구식 여자가 아닌 것은 선생님도 인정해 주시겠지요. 선생님,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제, 우에노 도서관

72) 棚田輝嘉, 「田山花袋「蒲団」-語り手の位置・覚え書-」, p.9.

73) 안영희, 「『이불』과 일본자연주의」, p.234.

에서 여자 견습생이 필요하다는 광고가 났기에 응모해 보려고 합니다. 둘이서 열심히 일하면 설마 굶는 일 같은 건 없겠지요.(7장, pp.85~86)

先生、私は決心致しました。聖書にも女は親に離れて夫に従うとございます通り、私は田中に従おうと存じます。…(中略)…私は恋を父母の都合によって致すような旧式の女でないことは先生もお許し下さるでしょう。先生、私は決心致しました。昨日、上野図書館で女の見習生が入用だという広告がありましたから、応じて見ようと思います。二人して一生懸命に働きましたら、まさかに餓えるようなこともございますまい。(7章, pp.70~71)

위와 같이 쓰며 자신이 일을 해서라도 다나카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의지를 도키오에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요시코는 “저는 결심했습니다”와 같이 ‘나’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보여지고,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말과 함께 세트가 되어 쓰여지고 있다. 이 표현법은 그녀의 언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자기규정 그 자체를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 같은 언설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후지모리 기요시(藤森清)는 캐롤린·하이루블란이 『여자가 쓰는 자전』속에서 어느 시기까지의 여성의 자전에 자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의 자아와 일체화시켜 그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구축하는 것 같은 서식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이러한 서식이 남성문화 속의 여성인 필자가 ‘남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는 최상의 방법’으로서 전략적으로 채용하는 언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시코의 언설에도 이와 같은 전략성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⁷⁴⁾

도키오는 두 사람의 사랑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요시코에 대해서 지배적이면서 요시코가 귀향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로 피지배적인 관계로, 이것은 도키오가 혼자서 발생시키고 있는

74) 藤森清, 「『蒲団』における二つの告白—誘惑としての告白行為—」, p.29.

것이 아니고 요시코의 언설에 의해서 전략적인 효과로서 도키오 속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⁷⁵⁾

세 번째 편지에서는 요시코가 다나카와 육체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거짓말을 하며 다나카와의 사랑이 신성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세 번째 편지에 이르러서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선생님, 저는 타락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후의를 이용하여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그 죄는 아무리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부디 약한 자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새로운 메이지 여성으로서의 도리, 그것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9장, pp.111~112)

先生、私は墮落女學生です。私は先生の御厚意を利用して、先生を欺きました。その罪はいくらお詫びしても許されませぬほど大きいと思います。先生、どうか弱いものと思ってお憐み下さい。先生に教えて頂いた新しい明治の女子としての務め、それを私は行っておりませんでした。(9章, pp.92~93)

위와 같이 요시코는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다나카와 육체관계가 있었다는 진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도키오가 요시코의 부친에게 “두 사람 사이에 신성한 영혼의 사랑만이 성립되어 있어 더러운 관계는 없을 것”(8장,p.98)이라는 말에 요시코의 부친이 “그러나, 그런 관계도 있으리라고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8장,p.98)라는 발언이 발단이 된다. 부친의 말은 도키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부친의 말은 단순한 ‘작품세계 내에서의 발언이상의 작용’⁷⁶⁾을 하고 있는 것이다.

75) 앞의 글, p.29.

도키오는 방으로 차를 가져온 요시코에게 그간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 전후의 편지를 보여 달라고 말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요시코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 무렵의 편지는 모두 태워버렸다고 변명하게 되지만, 도키오는 그 때, 요시코와 다나카가 육체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요시코는 진실을 고백한 편지를 도키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다. 편지에서 요시코는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새로운 메이지 여성으로서의 도리, 그것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참회하며 진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76) 藤森清, 「語ることと読むことの間—田山花袋「蒲団」の物語言説—」, 『国文学解釈と鑑賞, 特集: 近代文学と「語り」Ⅱ』, 至文堂, 1994/4, p.85.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가타이의 『이불』에 나타난 고백적 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이불』은 자연 중심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고 하여 인간사실의 심층심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정신성을 중시한 고백주의에 기인하는 작품으로서, 가타이가 『동경의 30년』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게르하르트 하우스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에 감명을 받아 가타이 자신의 경험을 작품화한 자기 고백적 소설이었다. 직접적으로 가타이가 자신의 고백이라든가 참회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가타이 자신의 인생의 사실을 열어보인 소설로서 고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불』은 많은 독자와 작가들에게 가타이의 적나라한 고백소설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은 작가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소설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작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작가의 신변을 그리는 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소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불』은 이중의 의미로 고백과 관련되어 있었다. 먼저 도키오의 고백적 심리가 표출되어 있는데, 가타이는 도키오를 통하여 인성의 비밀에 호응한 자신의 생활모습을 기교에 구애받는 일없이 끝까지 씬으로써 그의 인간성이나 삶의 방식을 나타내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단조롭고 권태로운 일상의 삶에 찌들어 살면서 아름다운 여성과의 새로운 사랑을 통해 문학 활동을 일신하고자 갈망하던 도키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제자 요시코의 출현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문학 활동에 있어서나 신선함과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새로운 사랑이

란 새로운 문학으로 향하는 희망이며 에너지인 것이다.

그러나 요시코에게 다나카라는 애인이 생기자 도키오는 스승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도 잊어버리고 여제자의 애인에 대한 질투와 자신의 사랑을 감추기 위해 ‘온정어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떠맡으며 위선적인 지식인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이 요시코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하자, 요시코와 다나카의 사랑을 갈라놓는 당대 지식인의 교묘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타이는 이러한 추악한 질투심과 지식인의 위선을 있는 그대로 내보임으로써 인간의 어리석고 경박한 취약성을 일깨우고자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타이는 『이불』에서 도키오를 통하여 본능에 지배되는 성적 인간으로서의 노골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골적인 성의 고백은 서구 자연주의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자연주의 문학의 영향은 작가의 신변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성에 관한 사실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보여 주었다.

인간은 사회적, 윤리적 인간이기 이전에 생물적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에 지배되는 인간으로 가타이는 자연주의가 표방하는 대로 본능에 지배되는 중년남의 추악한 모습을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가타이의 문학적 용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작가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추고 싶어하는 내면세계를 주인공의 고백의 형태로 발표한 작가의 진지한 태도는 그 때까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용기있는 새로운 시도로 가타이는 힘껏 자기고백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불』에는 이야기 전개상의 고백으로서 요시코의 참회를 동반

한 고백이 있었다. 그녀의 고백은 세통의 편지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데, 편지를 쓰는데 있어 그 감정과 생각의 표현이 능숙한 요시코는 편지를 통하여 그녀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그녀의 고백의 내용은 그녀와 다나카의 사이에는 육체관계가 있었고, 이것은 메이지 신여성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로 참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요시코에 시점을 맞춘 고백은 『이불』이 도키오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타이의 고백소설로 읽을 수 없는 근거가 되고도 있다.

가타이는 『이불』이란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작품 전체를 통틀어 처자가 있는 중년남의 질투, 위선, 추악한 성적 욕망으로 가득찬 고백의 내용 속에서 가타이가 내보이고자 한 것은 불건전한 작품 속에서도 놀랄만한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사실들인 질투나 위선, 추악함, 성적인 욕망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적나라하게 고백함으로써, 이러한 본능에 지배되어 고뇌하는 인간의 약한 모습이 인간의 진실된 모습으로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하고 취약한 일면을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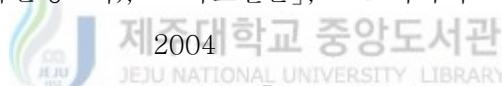
田山花袋, 『蒲団』, 岩波書店, 2003

1. 한국문헌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4

고바야시 히데오(유은경 역), 「사소설론」, 『고바야시 히데오 평론집』, 소화,



나카무라 미쓰오(고재석·김환기 역), 『일본 메이지 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나카무라 미쓰오(유은경 역), 『일본의 근대소설』, 동인출판, 1995

나카무라 미쓰오(송현순 역), 『풍속소설론』, 불이문화사, 1998

【논문】

고영자, 「일본자연주의문학의 특질-田山花袋의 「蒲団」을 중심으로-」, 『일어
일문학연구』, 제2집. 한국일어일문학회, 1981

남경희, 「田山花袋의 『蒲団』論 - 그 評價를 중심으로 - 」, 『일본어문학』,
제2집. 일본어문학회, 1996

남경희, 「花袋文学에 있어서의 女性」, 『일본어문학』, 제11집. 일본어문학회,
2000/8

- 안영희, 「『이불』과 일본자연주의」, 『일본어문학』, 제24집. 일본어문학회, 2004/2
- 전 영,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론」, 『고대일어교육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 일어교육연구회, 1999/10
- 허배관, 「일본의 자연주의의 특징에 관한 고찰-다야마 카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의논집』, 제28집. 동의대학교, 1998

2. 일본문헌

【단행본】

- 尾形明子, 『田山花袋というカオス』, 沖積舎, 1999
- 花袋研究会編, 『愛と苦惱の人・田山花袋』, 教育出版センター, 1980
- 岸規子, 『田山花袋作品研究』, 双文社出版, 2003
- 小林一郎, 『自然主義作家 田山花袋』, 新典社, 1982
- 田山花袋, 作家の自伝 25 『田山花袋』, 日本図書センター, 1995
- 田山花袋, 『小説作法』, 博文館, 1909
- 田山花袋, 「露骨なる描寫」, 明治文学全集67 『田山花袋集』, 筑摩書房, 1968
- 日本近代文学大系57 『近代評論集 I』, 角川書店, 1972
- 宮内俊介, 『田山花袋論攷』, 双文社出版, 2003
- 柳田泉, 『田山花袋の文学・一』, 日本図書センター, 1989
- 吉田精一, 『自然主義の研究下巻』, 東京堂, 1958

【논문・잡지】

- 秋山公男, 「『破戒』『蒲団』—苦惱と弱性」,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1』, 学術文献刊行会, 1998
- 伊狩弘, 「『蒲団』の一考察」,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1』, 学術文献刊行会, 2000
- 大久保典夫, 「自然主義と私小説—「蒲団」をめぐる—」,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特集: 私小説の運命, 学灯社, 三月号
- 小仲信孝, 「〈文学〉の裏切り—『蒲団』と自然主義—」, 『国文学研究』, 早稲田大学国文学会, 1990/3
- 小林一郎, 「『蒲団』(田山花袋)」, 『国文学解釈と鑑賞』, 特集: 近代文学が描く愛と性, 至文堂, 1987/10
- 高橋敏夫, 「『蒲団』—“暴風”に区切られた物語—」,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1』, 学術文献刊行会, 1985
- 棚田輝嘉, 「田山花袋『蒲団』—語り手の位置・覚え書—」, 『国語国文』, 京都大学国文学会, 1987
- 千葉貢, 「田山花袋『蒲団』考—「告白」の悲しみ—」, 『高崎経済大学論集』, 高崎経済大学学会, 1992
- 土佐亨, 「蒲団の匂い—比較文学的ノート—」, 『国文学年次別論文集 近代1』, 学術文献刊行会, 1985
- 長谷川吉弘, 「『蒲団』について—時雄の苦惱を中心に—」, 『解釈国語・国文の研究と教育』, 解釈学会編集, 四月号
- 藤森清, 「『蒲団』における二つの告白—誘惑としての告白行為—」, 『日本近代文学』, 日本近代文学会, 1993
- 藤森清, 「語ることと読むことの間—田山花袋『蒲団』の物語言語—」, 『国文学解釈と鑑賞』, 特集: 近代文学と「語り」II, 至文堂, 1994/4

光石重由美, 「〈性〉的現象としての文学—性欲描写論争と田山花袋「蒲団」—」,
『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編集・刊行, 1999/6
和田謹吾, 「「蒲団」と虚構性」,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特集: 明治文学の問
題点』, 学灯社, 四月号

【사전】

新村出編, 『広辞苑』第五版, 岩波書店, 1998
『세계문학대사전』, 학원출판공사, 1985



<Abstract>

The Study on Tayama Katai's Huddong

– With priority given to a confessional factor –

Yang, Yeon Sil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 Bong

Major in Japanes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Tayama Katai's 'Huddong' is a short novel published in 'new novel' in 1907(in the Meiji year 40). As Katai disclosed in 'Tokyo's 30 years', the novel of which a middle-aged literary man depicted a young scholar as a sex object was a confessional novel describing his own experience after he had been impressed by Gerhart Hauptmann's 'lonely people'. Katai showed a sexual passion from real life frankly on the basis of his literary theory called a theory of a frank description. 'Huddong' as a work representing naturalism received a eulogy and a great review by causing a sensation in the Japanese literary circles.

As a representative criticism about 'Huddong' at that time, Shimamura Hogecheu reviewed this piece of work as bold confessions of sensual people, and then 'Huddong' was read as a confessional novel of Tayama Katai. So a new genre which is a novel dealing with the author's own life appeared in the Japanese literary with many writers publishing a similar type of nove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This paper is designed for considering what Tayama Katai said through his confession and studying Yosiko's confession on the discovery of the text. 'Huddong' was connected with confession by a double meaning. First, the hero, Tokio,'s confessional mentality was expressed. Katai confessed his life in response to humanity's secret through Tokio regardless of technique.

Tokio, who is a literary man in the 30's with a wife and three children, works for his living at a geography book company as an editor reluctantly. Suffering from being far behind in his literary career and a monthly harsh criticism from a youth magazine, he decides to begin a new life in literary through love with a beautiful woman. The appearance of a beautiful scholar, Yoshiko, gave freshness and a new energy to Tokio's life as an appearance of a modern woman. But Yoshiko got a boy friend named Tanaka, which means Tokio felt jealous of Tanaka with Tokio forgetting his status of a teacher. while he showed duplicity frankly as a hypocritical intellectual by taking a role of a warm-hearted protector for both Yoshiko and Tanaka outwardly. Also, Katai made a frank confession to be a sensual human who is subject to the instinct through Tokio. Although Yoshiko was his scholar, Katai showed a dishonorable aspect of a middle-aged man feeling a sexual desire. This could be Katai's literary courage that does not fear to show his own experience.

And there was Yoshiko's confession in 'Huddong' as a confession on the discovery of the text. She was so skillful at expressing feelings and thinking that she used a letter mainly in confessing her inner life. Her confession was that there was a sexual relations between her and Tanaka and she repents of her sins which are unreasonable as a modern woman in Meiji era. This confession of Yoshiko also has a reason that 'Huddong' can not be read as a confessional novel of Katai.

As above, in confession which is filled with jealousy, hypocrisy and a dishonorable desire for, Katai tried to show that there is an amazing truth of life even in an unwholesome literature through 'Huddong'. That means that Katai intended to make readers aware that human aspect suffering from jealousy, hypocrisy and a sexual instinct is a man's real character, so it can be just a part of nature.